

함께쓰는 밤 시즌 4

# 사진과 감정들

-

## 글

쓰밤n김남열  
정뱅이n김은정  
너부리n이상미  
은비n장은비  
복 이끄미n최광복  
첫문장n최현수  
알미트라n박준형  
물까치n경아  
신나라n신순주

-

## 사진

김재열  
@a\_pleasant\_memory

-

## 영화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ollects  
<https://www.artic.edu/collection>

-

사진/영화 - 글 - 필사



톡.

실 끊기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온 것도 같다.

지금 이곳에 서있는 게 못내 괴롭다 못해 마치 진공상태에 놓인 것처럼 숨이 막혀왔다.

관계는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그 허물 어지는 순간을 난 푹푹히 보았다. 얼마나 작은 틈으로 인연이 세어나가는지.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말로 어긋나게 되는지를. 순간 소리의 소멸과 무겁게 공기 속으로 가라앉는 먼지들의 반짝임, 읽어낼 수 없는 표정들과 더 이상은 헤아리고 싶지 않은 감정들.

소멸의 순간은 맨눈으로 태양을 바로 본 것처럼 강렬하다 못해 데일듯 뜨겁게 기억되고 한순간 바람에 날아간듯 그 뒤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관계의소멸 #인연의민낯

너를 만나기로 한 밤에 가만히 서서 별들을 지켜본다. 밤하늘은 고요하다. 하지만 그건 내가 시간을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만약 내가 천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게 느껴질 만큼 시간을 띄엄띄엄 인지할 수밖에 없다면, 마치 별들이 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처럼 느껴질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하루 같은 건 금방 끝나버릴 텐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도 전에 늙어서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서 멀미를 느낄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밤하늘이 고요하다는 사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지 않나, 라고 이토록 오랫동안 생각했는데도 너는 안 오네.

#시간 #속도 #혼자만의 긴 시간

나는 항상 모든 방면의 역사에 매료된다. 지질학자로서 나는 주 전공이 지구 역사이지만 대명종 덕분에 생명 역사를 배울 기회가 있었고, 소행성이나 혜성의 대충돌 덕분에 우주 역사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 게다가 지질학은 나의 아내 밀리를 지구의 여러 특이한 곳들로 이끌었는데, 그러면서 인류사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은 꽤 오랫동안 취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결국 나는 모든 과거를 아우르는 관점을 견지한 일종의 다학제 간 분야 안에 이 모든 역사를 묶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던 어느 날, 네덜란드의 생화학자이자 인류학자인 프레트 스피르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빅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이 개념과 이름은 지극히 전문화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호주의 역사학자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기막힌 우연들 p.24

#빅히스토리 #우주 #역사 #인류









게를 보자마자, 게에게는 미안하게도 간장게장이 떠올랐다. 박하지라고 부르는, 몸통은 작지만, 수컷은 집게발이 매우 큰 게를 닮았다. 꽃게로 만드는 간장게장도 맛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박하지가 감칠맛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먹을 생각부터 든 나는 문득 예전에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중학생 때 CA를 과학부인지로 신청했었다. 과학선생님께서 자연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틀어주셨는데, 한 번은 심해어류에 관한 것 이었다.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형광갈치도 있고 꽤 아름답게 생긴 것이 많았다. 한창 중2병일 나이, 저것들은 깊은 바다속에서 하루종일 등실등실 헤엄치며 하루종일 무슨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저것들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세상에 대한 허무함과 뭐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친구와 문자를 하며 생각했다.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자연세계,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은 하루종일 서서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엄청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깨달음이 왔다. 그들은 하루종일 언제 어디서 포식자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매 시간이 경계와 두려움의 연속이니 지루할 새가 있을리가 없었다. 눈에 뜨일까봐 바윗새에 찰싹 붙어 이동하는 게를 보니 치열하게 사는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깜짝 #발견 #맛있겠다

스며드는 것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옆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꺼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간절하게 참 철없이 申\_안도현

#죽음앞에서 #두려움 #안도시키는





할망은 이야기하는 내내 '행복은 지금'이라 누차 말씀하셨다. 옛날엔 먹을 것은 없었지만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아 행복하지 않았냐 물어도 할망은 지금이 좋다 하시고 집 앞 바다에 생겨난 커다란 풍력 발전기가 물질하는 해녀들의 잠수를 방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거푸 지금이 좋다 하셨다. 세월에 많은 것을 잃어 너무나 불행하고 박복하다 여겼던 자신의 지난 시절은 이미 흘러간 것이라며, 할망은 여전히 지금을 강조하신다. 지금보다 맑고 투명했던 바다를 그리워하지도, 육지로 물질을 하러 나가던 젊은 해녀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하지도 않는 할망. 오로지 그리운 것은 하르방뿐이다.

"이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지크냐? 지금 행복하든 곧지 않으면, 그건 욕심이 너무 많은 거라. 쇠똥 물똥 주워당 겨울 나고, 검질 비어당 밥 행 먹고, 병원이 어시난 마을 당에 강 하나님신디 살려돌랜 허고...이제사 병원도 있고, 먹을 것도 여성 못 먹느냐 게, 고치 먹을 입이 여성 못 먹주."

:"이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냐? 지금 행복하다 말하지 않으면, 그건 욕심이 너무 많은 거라. 소똥 말똥 주워다가 겨울 나고, 잡초 베어와서 밥 해 먹고, 병원이 없으니까 마을 당에 가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하고...이제사 병원도 있고, 먹을 것도 없어서 못 먹느냐, 같이 먹을 입이 없어서 못 먹지."

할망은 희망 中\_정신지

#결핍과불행 #지금의행복 #만족하는삶





한 해 건너 도착한 고향 바다. 겨우 2시간 거리라 주말에라도 올 법했지만, 마음의 거리가 멀었던 걸 테지. 매년 이 곳에서 탁 트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봐왔다. 쌓인 것들을 풀어내고, 힘을 북돋는 매력이 있는 곳이다. 한데, 2년 동안 겹겹이 들어찬 고난들 덕분일까. 오늘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아 답답하다. 제대로 영켜 붙은 모양이다. 고구마 세 개쯤 썰어서 넣은 목 구녕 마냥 목멘다. 여기서도 해소가 안된다 생각하니, 두근거리며 가슴이 아려온다. 음식 먹다 막혔을 때도 억지로 내리려면 아픈데 오죽하랴.

이대론 무리일 성싶어 두리번거린다. 금지구역이라 조금 눈치 보였지만,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곤 난간을 넘어 바위에 앉았다. 건너오는 길에 약간의 젖음을 감수해야 했지만 대수롭지 않다. 걸터앉기엔 낮은 높이라 발목을 엑스자로 꼬고 가부좌인 듯 아닌 듯 편한 자세를 찾았다. 바람과 빛살을 한껏 받을 수 있도록 자세를 잡고, 꽤 오랫동안 미동 없이 이곳을 받아들였다.

소리 날 리 없는 낮게 일렁이는 파도가 들린다. 지평선 넘어오는 바람이 겨드랑이 사이를 빠르게 훑는다. 구름 섞인 푸르름을 음미한다. 세상이, 지구가 나에게로 들어오려는 듯하다. 빼와 빼 사이 들어찬 긴장감이 녹아내리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먼밀히도 나를 느껴본다.

흰히 보이던 가르마 주변으로 머리칼이 들어찬다.  
미간에 쌓인 짜증이 풀리고,  
악에 받쳐 뭉친 양 볼의 근육이 이완된다.  
한 움큼 쥐어질 만큼 뭉친 승모근은 집게손가락으로 쥐어질 만큼 보들보들해지고,  
모니터 보려 치 올랐던 어깨가 차분히 내려앉는다.  
명치 가득 응어리진 딱딱한 것은 배꼽 밑 단전까지 내려앉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며, 디스크가 제 자리를 찾는다.  
책상에 앉아 있으랴 퍼진 엉덩이는 온몸을 지탱하려 솟아오르고,  
허벅지와 종아리는 당장 뛰어갈 수 있을 만큼 탄력이 오른다.  
언제나 찌꺼기 그득 쌓여 부푼 발바닥에서는,  
발가락 끝마디부터 저릿저릿한 것이 썩은 노폐물 끄집어내려 피가 돌기 시작한다.  
박동 소리가 귀 옆까지 흘러나오고,  
심장에서 뿜는 뜨거움이 온몸을 휘감는다.

몸은 준비가 됐으니 이젠 내 마음의 차례다. 2년간 등에 짊어진 것들을 풀어 바다에 던지자. 다 잊어도 좋다. 알아서 되돌아올 것들이니 버려도 괜찮다. 그러니 오늘은 내 마음의 무게 정도만 들고 있자.

#스트레스 #해소 #고향 #바다 #응어리 #명상 #하늘 #푸르다



난 바닷가만 보면 척수 반사적으로 고등학교 때 읽었던 영어 독해 지문 하나가 떠오른다.

내가 기억하는 그 내용인즉슨 이렇다.

'달빛이 창연한 밤,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닷가를 걷는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밀물 때 흘러들어 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채 모래사장에 널브러져 있는

무수히 많은 불가사리를 그가 걸으며 잡히는 대로 하나씩 집어 들어 바다로 던져 넣고 있었다.

멀찌감치 그걸 지켜보던 한 남자가 노인에게 물었다.

어차피 노인장이 다 끝내지도 못할 그 일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노인이 대답했다. - 아마 질문한 남자를 쳐다 보지도 않으며 쿨하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래야 더 멋이 사니까.-

"적어도 저놈(노인이 던져서 바다로 돌아간 불가사리) 하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

사실 원문이 정말 이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 내 머릿속에서 내용이 윤색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내 생전에 원문 출처를 찾긴 힘들겠지... 그냥 이 내용으로써 난 만족스럽다.

다만 나로서도 신기한 건

고교 수능과 더불어 성인이 돼서 토익 시험과 공무원 시험까지 치르며  
정말 지겨울 정도로, 거의 천여 개가 넘는 영독 문제를 풀었는데  
유독 이 글만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뭘까.

#바다 #해변 #모래사장 #광활 #무한 #추억 #영어

오늘도 사내는 그녀의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대보며 내일은 그녀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소원해본다.



사진을 고르던 중 몰래 훑쳐보는듯한 느낌이 신기한 이 사진에 눈길이 갔다. 열매 아래쪽만 약간 붉으스름하게 익었다. 비밀스럽게 익어가는 열매를 은밀하게 관음하는 것 같은 기분도 잠시. 문득 열매의 이름이 궁금했다. 대추방울토마토같이 생겼는데 줄기를 보니 나뭇가지인 것이 토마토는 아니다. 엄마가 떠오른다. 엄마에게 물어보면 알려주실 것 같다.

꼬맹이시절 여름방학이면 시골에 있는 외가댁에 갔었다. 길을 가다 엄마는 '저건 무슨 나무야', '저건 무슨 꽃이야', '저건 무슨 나뭇잎이야' 알려주셨다. 하지만 스쳐지나가는 식물과 그 이름들은 머리속에 남지 않았다. 내가 이름을 아는 식물은 코스모스, 은행나무, 장미, 소나무 같이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들도 알 것 같은 것들 뿐이다. 정확하게 몇 살 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어린아이들은 '저건 뭐야?' '왜?' 등등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어를들을 성가시게 만드는 시기가 있다. 애를 안 가질 생각이긴 하지만, 나는 질문많은 나의 아이에게 무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일까 나를 되돌아보는데 텅텅 비어있다...

#훑쳐보기 #은밀 #도착 #성장









새벽녘 꿈을 꾸었어

꿈을 꾸었다. 오래전 만나오던 그가 자주 꿈에 나왔다. 우린 이미 이별한 지 꽤나 오래되었는데,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이라도 반영이 된 건지 꿈속에서 당신은 내게 아는 척을 해왔다. 파란 슈트를 말끔히 빼입은 너는, 체격도 좋고 표정도 좋았다. 누가 보아도 참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다만, 약간 거만해진 표정으로 나를 보며 인사하는 너란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만가지 감정들이 교차했다. 너는, 좋아한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아닌, 잘 지냈냐고 했다. 나는, 잘 지냈냐는 그 말 한마디에 다잡아두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다. 헤어진 이후로 줄 곳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애절했던 너였다. 울다 지쳐 잠들게 한 것도 너였고, 화를 낼 대상이 사라져 엉뚱한 사람에게 화내게 한 것도 너였다. 존재는 없는데, 나의 이 분노와 슬픔과 애통함과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도록 만든 게 너였다. 그러니, 다시 보게 되면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했다. 원망하고 분노하리라 생각했өө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잘 지냈냐"라는 너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멍하니 너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좋아해."

라고 말했다. 겨우 너를 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그거였다. 5년 넘게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 좋아한다는 말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하기 그지없다.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저, 지나간 추억에 대한 연민과 아쉬움이란 것을 너무도 잘 알았다. 그와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자 해서 뺄은 말도도 아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듯이,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난 걸 너무도 극명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은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따로따로 행동해버리고 말았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만날 것도 아니지만, 네가 없던 시간에 나는 너를 생각했었다고, 꼭 전해야 할 것 같았어. 너는 잘 살았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아니 애초에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랬다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헤어진 이후의 몇 번의 연애가 너를 잊을 수 없어서 헤어졌어. 이제 되었어. 이야기했으니까. 이걸로 충분해."

그렇게 말한 나는, 뒤를 돌아 원래 가려던 길로 터벅터벅, 주책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새도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걸었다. 앞으로 한발씩 내디딜 때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속해있던 마음들을 털어버리려고 꼭꼭 눌러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당신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상상도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앞으로 갔고, 또 갔고, 눌러 담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때마다 꾸역꾸역 걸음을 옮겼다. 걸었다.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

미어지는 감정들이 사그라질 때쯤, 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바닥만 보고 걸어왔는데, 어느새 내 옷은 바뀌어있고, 환경도 바뀌어있었다. 웬지 내가 주인공인 파티 같았고, 아직 이 감정을 추스르기엔 벽찬데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얀 벽면, 붉은색 카펫이 깔려있고, 따뜻한 조명과 풍성한 꽃 장식이 있었다. 공간

의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천장엔 샹들리에가 있고 잔뜩 꾸며입은 사람들이 그 아래로 스쳐지나다녔다. 멍하니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불안한 감정과 슬픈 마음이 교차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다가 점점 선명해지는 누군가를 보았다. 이내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내 앞에 건넨다. 네이버색의 상자 속에서 빛나고 있는 형체를 보았다. 화려하지 않은, 반짝거리는 은색의 반지였다. 군중속에 둘러쌓여 나는 한 사람의 고백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걸 이 사람이 내게 줄리가 없는데, 왜.. 지.. 왜 하필 이 사람이지 하며 어안이 병병했다.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정말 좋은 사람일까를 염려하던 사람. 아직은 서먹하고 공적인 관계일 뿐인 사람. 애뜻해질 겨를도 무엇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있지 싶었다.

"나랑 결혼할래?"

어라... 왜,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나 싶은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해버린다. 입이 방정이다. 머리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제멋대로 말을 한다. 그리고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얽히고설킨다. 아니, 적어도 데이트 한 번은 해보고 결혼해야 하잖아. 어떻게 그냥 결혼할 수 있지? 연애는 생략하고, 결혼부터 하고 생각하는 건가. 이건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곤 한두 시간을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나, 이 결혼 안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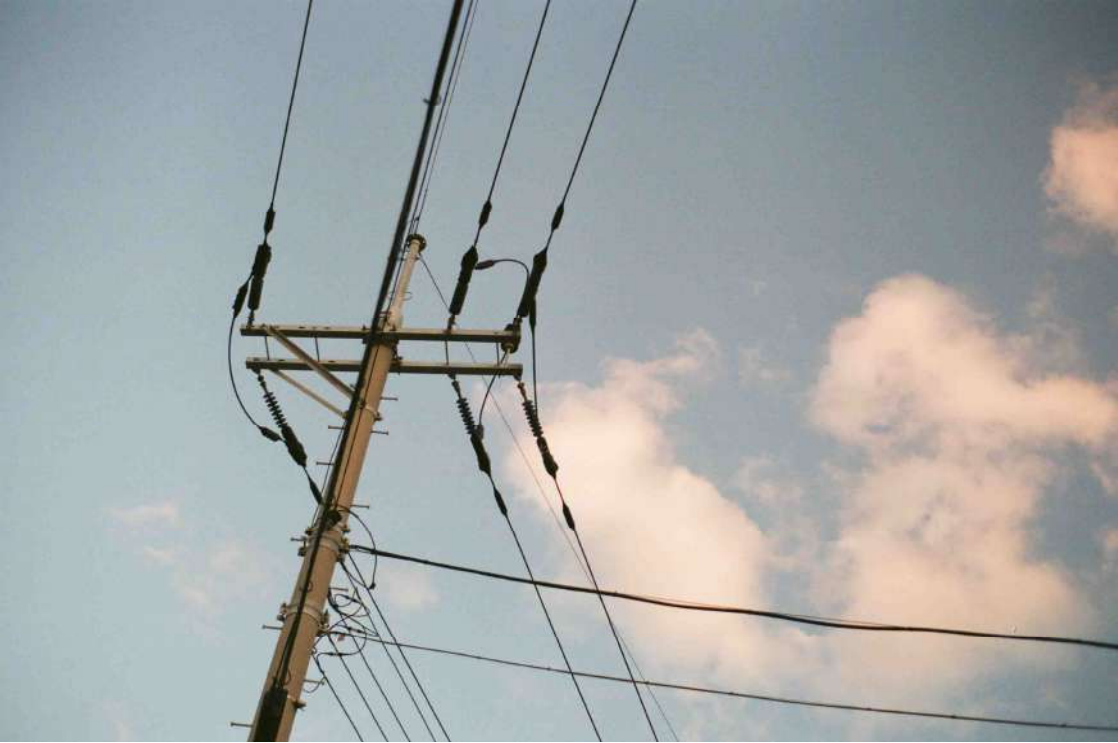
하고는, 뛰쳐나갔다. 신발도 없이, 문을 벌컥 열었는데, 2층의 창문이었다. 맨발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붉은색 카펫의 끝에 있던 바구니를 뒤집어 내용물을 비운 뒤 양 발에 끼고는 폴짝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다치기보다, 개운했다. 힘껏 뛰어내렸는데 겨우 2층높이라니 다행이었다. 넘어지지 않고 착지도 잘했다. 그러다가 또 슬퍼졌는데, 미안한 마음이 컸다. 승낙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고 마음이 쉽게 바뀌어, 먼사포 휘날리며, 하얀 웨딩드레스를 손에 쥐고 하얀 바구니를 발에

끼운 채 아스팔트 위를 달렸다. 자유롭기도 했다가 미안했다가 슬펐다가 속상했다. 울었던 걸까. 마음으로 울었던 걸까.

너무도 선명했던 꿈을 깨고 일어났는데, 깨고 싶지 않았다. 꿈속에 사무치게 그림던 사람이 나오고, 꿈속에선 결혼하자는 이야기도 듣고, 두근거렸다. 물론 슬프고 애통하고 비참하고 아쉬움이 가득했던 마음들도 들었지만, 현실이라고 다르지 않으니까. 차라리 꿈이면 아무런 제약도 없고, 꿈에서 계속 살아갔다면 그 길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꿈이 현실이 되고 그러면 안 될까. 그래도, 꿈에서라도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을 전하고, 울기라도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러나, 이젠 어떤 노력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 마음이 애절하고 미어져서, 꿈이 깬 아침에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침이었다.

#이건꿈 #생생했던꿈 #오늘꿈





"전깃줄이 없으면 전봇대도 쓸모없는 걸까?"

5년 간의 동호회 회장을 내려놓은 지 일 년이나 흘렀다. 비영리 모임이지만 200명이나 되는 회원을 위해 꽤나 시간을 투자했다. 직책만큼이나 헌신해야 한다 생각했고, 좋은 모임 만드려 내 생활을 버리다시피 했다. 그저 동호회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는 그것 이상이였다.

무사히 모임을 이끌어 냈고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무언가 어긋남을 깨달을 건 이 취임식이 끝난 한 달쯤 후였다. 10킬로나 급격히 빠진 나는 모든 것에 전의를 상실했고, 무기력했다. 여유를 찾은 만큼 생활은 다채로워지리라 생각했건만, 되려 단조로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보라는 말에 여건상 식물을 키웠는데, 무슨 이유인지 한 주를 못 버티고 시들었다.

그리도 서럽게 울던 날은 3번째 시들던 날이다. 무슨 오기였는지 똑같은 식물을 다시 키웠는데, 3번째 시들던 날 밤새 울었다. 죽음이 슬펐던 게 아니다. 어떤 것도 내 삶의 길이만큼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할퀴었고, 그 현실이 스스로를 상실케 했던 거다.

정신을 차린 건 반년 정도 뒤다. 신임 회장이 내가 걱정된다며, 아파도 밥 한 끼 먹으러 나오라는 말을 남겼다. 출석이 부진한 회원들에게 안부를 묻는 건 회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하필 그때, 그 순간, 걸려온 전화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줬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 대해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회원들 덕분에 5년이나 내가 채워졌단 것이다.

가능한 방을 넓게 쓰려 안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죄다 버렸더니 허전한 감이 있지만, 되려 마음이 그득하다. 남을 위했던 배려와 헌신이 결국 나를 위한 거짓된 이타심임을 알게 되자, 내가 갈구했던 동반자를 찾게 됐다. 상실감은 나를 잃어 생긴 감정이다. 애초에 밖으로부터 나를 지켜 세운 게 문제였다. 스스로 서야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일본일초도 버티지 못하는 겁쟁이였으니 말이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어설피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3번째 식물이 죽던 날 그 예상은 진실이 됐고, 무의식에서 까지 끄끖 숨기려 했던 나약함이 모두 뺏어졌다. 나는 누군 위할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한 채 밤새 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약간 비틀거리긴 해도 혼자 설 수 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나는, 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어느 모임 회장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 어느 직업, 어느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저 나다. 내 삶의 이유는 오롯이 나에게서 비롯된다. 나는 내 이름 세 글자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깃줄이 없어도 전봇대는 쓸데가 있다."

#상실감 #주체 #스스로 #존재 #가치







그건 분명, 저마다의 색깔이 있는 것이었을텐데,

집, 회사, 간혹 잠깐의 여유. 모두가 그렇듯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즐비해있던 공간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푸르른 하늘과 바다의 사진 대신, 맛집 투어로 발견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 대신, 집에서 활동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다. 집에서 해 먹은 음식의 사진이라던가, 가족과 하는 보드게임, 캠핑 등이 시국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스쳐 지나가듯 보는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는 이내 다른 필드로 넘어가는 형태지만, 그럼에도 부구하고 누군가의 일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때대로 힘이 나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비슷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저마다의 색을 나타낸다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각종 SNS의 활동에 가끔 진절머리가 났다. 비슷한 후기들이 자주 올라오고, 비슷한 느낌의 먹방들이 자주 올라오며(아직도 먹방을 보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 비슷한 이야기로 성공했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콘텐츠라고 당당히 우길 수 있는 부분일까. 과연 그 아이디어는, 혹은 실제로 제품을 받고 작성된 후기일지라 하더라도 주변에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을까. 업체에서 시킨 이야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럼 나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 위해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어 글을 쓰고 리뷰를 하고 있는 나는 나의 색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인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아니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그 공간에서 그럴싸한 정보들이 오고 갔다. 햇빛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게.

SNS를 하지 않는 이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색은 어떤 색일까. 본연의 색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컬러풀해 보이는 것은 단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었는지 혹은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 과도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는 삶이 부러웠기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요즘의 나는, 빨간 우산도 파란 우산도 노란 우산도 좋으니, 설령 찢어진 우산이라고 해도 괜찮으니, 우리가 다시금 각자의 색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단풍의 색도 그림고, 파란색과 노란색이 잘 융화되어 편안한 초록색을 만들듯, 날이 시퍼렇게 서서는 서로를 할컬 듯이 노려보며 겨우 잿빛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색과 잣대가 옳다고 말하지 않기를.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흡연을 하던 종교를 갖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다르던, 그것은 모두 그 사람만의 색이므로, 그 사람의 색과 융화되었을 때 나의 색이 빛나고, 그 사람의 색이 빛나는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기를. 섞이고 나니 결국 회색과 검정만 남았더라라고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사라져버린색 #저마다의색 #색의온도

J와 나는 수많은 우산들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그것들은 활짝 펼쳐진 채로  
전깃줄 같은 선에 매달려서 간혹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곤 했다. 그녀와 나는 같  
은 곳에 서 있지만 분명 다른 풍경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녀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왜 사람들은 그녀와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가만  
히 서서 아무 말이 없는 것도 그녀는 그게 편안해서 그런 것이고, 나는 그녀의 편  
안함에 방해가 될까봐 말을 삼키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내면까지 알아낼 수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  
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단순히 그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실감하게 된다. 지금  
은 평온하지만 폭풍이라도 거세게 몰아닥치면, 그녀는 내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까? 그녀가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을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두렵다.

하지만 나 또한, 이런 두려움을 굳이 소리 내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다만  
지금쯤 바람에 우산이 뒤집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 순간을  
각자 어떤 기억으로 남겼을 지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후에야, 아니면 영영 알 수  
없을 테지.

#신비로운분위기 #다른세계인것같은느낌







나란히 피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잠시 뿐이다. 한 발만 잘못 디터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 옆이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봐야만 하는 나를 울아 매기만 하는 줄기들. 그들 모두 내가 느낀 어둠을 똑같이 느끼길 바라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도 알고 있다.

그들로부터 나를 도려내면 이윽고 추락이 시작될 것이다. 중력이 내 편을 들어줄 리는 없다. 다만 제 때 바람이 불어준다면 보다 멀리 날아가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요행을 바라는 건 세계에게 사랑받는 자나 해볼 수 있는 바람이다.

그러니 다만 난 내가 좀 더 단단해지기를 바란다.

#둘 #궁지에몰린상황 #운명공동체



5년 차 결혼 생활은  
호수라 부르기에 너무 우아하고  
저수지, 그 정도가 딱 맞는 표현이다.

고작 한 방울씩 떨어진 빗물에  
결국 독이 터지고야 마는 저수지

깊이를 모르게 넘실대던  
물이 다 쏟아져 나가고  
뜨거운 태양에 바닥이 짹짹 갈라진 저수지

다시 보수한 독에  
적당히 차오르는 빗물  
그 위로 짙은 고요함이 깔린 저수지

떨어져 보면 평화롭지만  
가까이 가면 질척이기도 하고  
냄새도 좀 나고 벌레도 꼬이는 저수지

논밭떼기 가운데 있는 저수지  
그 정도 딱 맞는 표현이다.

#결혼의현실 #멀리봐야평온 #툭툭한시인

물가의 민들레. 민들레 흙씨가 조금만 더 많이 날아갔더라면 물에 떠내려 가 뿌리 내리지 못할 뻔 했다. 흙씨 하나로 날아와 땅에 깊숙히 자리잡고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자라 알아서 꽃을 피우고 몇 십 배인지 몇 백 배인지 더 많은 민들레 흙씨를 만들어 냈다. 문득 바다거북이나 올챙이들이 생각이 난다. 바다거북은 어미 거북이 모래를 파고 알을 낳아 놓으면은 알을 깨고 나와 모래 밖으로 기어나와 부지런히 바다를 향해 파닥파닥 돌진한다.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 세상을 알아서 헤쳐나간다. 올챙이들은 또 어떨까. 엄마개구리 아빠개구리가 보호해주지 않은 개구리알. 물렁한 알집을 헤치고 나와서 어떻게 저절로 포식자를 피해 살아남아 성장하다보면 몸이 변한다. 뒷다리가 생기고 앞다리가 생기고 꼬리가 점점 없어지고 팔딱팔딱 육지를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다. 아무도 그들의 육신이 변할 것이라 알려주지 않지만 어른 개구리가 되어 짹짹하고 자손을 만들어낸다. 몸에 없던 무언가가 돌아날 때 이상한 변화에 무섭지는 않았을까? 인간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변할 것이다 미리 알고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나에게 무언가 가르쳐 준 어른들이 없었더라면 나의 성장과 살아가는것이 어땠을지 까마득하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년의 인간은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알고 자신의 기분변화가 어떤건지 모른다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배우지 않으면 나도 나를 모른다.

서점에 있는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거절을 좀 해도 되는 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다른이에게 미움을 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도 모른다.

사람은 알아서 크지 못하고 남에게 배워가야 한다.

#홀로서기 #기다림 #버티기 #아슬아슬







당신의 연주소리가 그리워요.

청아하고 맑았던 하늘만큼 유독 그사람이 뇌리에 남아있다. 파란색 차를 타고 십여분을 달려 도착했던 풍경속에서 가볍게 짐을 꺼내다 트렁크에 실려있는 기타를 보았다. 꺼낼일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꺼내와 수준급의 기타실력을 보여주던 그사람이 무척이나 좋았다. 아마도 나는 그날 웃으며 신나하는 그모습에 설레고, 와인과 함께한 적당한 취기에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열었을거라 추측할 뿐이다. 어느샌가 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아버린 그날의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적이고 귀여웠다. 본인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고 반듯하고 정확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어눌했고 허술했으며,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이는 기분이 꽤나 좋았다. 모든걸 내어줄 것 마냥 사람 좋게 풍성하게 웃고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호기심이 생겼다. 눈동자에 담긴 자신감있는 반짝거림은 사랑으로 자라 부족함 없이 자라난 한 청년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사랑이 묻어나는 얼굴과 표정을 보고 어찌 모르는 척 할 수 있었겠는가. 함께 이야기하고 한잔 두잔 훌쩍거리며 가볍게 와인을 즐기는 당신의 모습에 나 역시도 풀어지고 행복했다.

아마 그 사람은 모를테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이 꽤 좋아졌다. 부쩍 다가가고싶어지는 요즘인데, 낮을 가리는 나로서는 감정과 호기심이 생겨버린 이상 지나치게 돌직구를 하던가 혹은 아예 다가서지도 못한다. 이번의 애정과 호기심은 오랫동안 지켜보는 길을 택했고, (그 사이에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되겠지만,) 다같이 말고 둘이 밥한끼 하자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어지는 요즘을 보내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이 마음이 언제까지고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과 호기심엔 타이밍이라는 것이 늘 존재하여, 우리를 우리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를 가족이라 부르도록 하는 것도 모두 타이밍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니, 이번에도 다를바가 없으리라 여긴다. 해서, 나의 마음은 잠시 이렇게 즐기며, 기분이 좋게 둔 채로, 나는 그 사람의 주변에서 맴돌아 보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게 티가 다 나려나.... 흠. 이성간에 친구가 된다는 것은 웬지 어렵고, 이성간에 친구로 지내는 것도 요즘은 어려우며, 이성이 동성처럼 편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점점 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데, 나는 앞으로 이 호기심을 애정으로 바꾸고 사랑으로 바꾸어갈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는 하루였다.

옛날 그 어릴적 우리의 연애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던 것이었나 하고 매일밤을 생각하고 떠올린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기타 #연애 #설렘

살며시 눈을 떠보니  
지긋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네요.

"잘 잤어?"라는  
말과 함께 나를 쓰담아주네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대의 목소리의  
내 마음은 어쩔 줄 몰라 하네요.

#벽차오르는 #설렘 #책임져 #내마음



항상 그렇게 외로웠던 시간들이었지. 새삼스러울 필요 있을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데, 말 한마디에 한 명은 실망했고, 한 명은 실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스물세명은 어안이 병병했을 것이고, 스물세 명 중 몇몇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으며, 그중 또 몇몇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야기해 주지만, 막상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발언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상대에게 내 사정이 이러했고, 우리가 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야 라고 이런 마음을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일까. 어차피 그 사람은 내게 실망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 핑계를 대도 이미 실망한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백번 잘해도 한번 실망하면 마이너스 백이 되는 상황. 이미 실망했는데,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하루 종일 퍼져버렸다.

오늘의 일이 단순한 말의 와전으로 인한 불편감이었을 뿐, 특별히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건 나도 알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 속상했던 부분이면 그건 속상한 일이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는 했지만 상대가 대충 얼버무리는 것은 아닌지, 그사람이 바라보는 나는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아닌지 자꾸 돌아본다. 되새김질한다. 한마디 한마디 더 조심스러워야 했다. 그게 칭찬도 반대도 아닌 그냥 공감의 언어였을 뿐인데, 그 공감이 되려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불편을 주며, 실망할 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건 몹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기분, 상상 속에 존재하는 행동,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선다. 어차피 나 혼자 느끼는 소속감일 뿐, 피드백 없는 관계 속에 나는 왜 허우적거렸다. 그렇게 홀로 외로이 있던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면서, 언젠가 다 떠날 것이고 머무르지 못할 거란 걸 너무도 잘 알면서도 질투하고 부러워했다. 나도 그 무리 속에 함께하고 싶었다.

그들만의 세계에 나도 소속되고 싶었던 게 본심이다. 그러나 우리라는 이름과 율타리 안에 있길 바라면서, 한편으론 바라지 않았다.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게 사람 관계고 장점 단점 두 가지 양면성은 누구나 가진 것을 알기에, 상대의 이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친해지길 두려워했다. 반대로 상대에게 내 이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소속감이 없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다. 서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저 사람도 완벽하진 않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친해지기 가장 좋을 때라고는 하지만, 내겐 그 과정이 두렵다. 그 과정 중에 상대가 내게 실망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게 가장 두렵다. 모든 이에게 완벽하고 좋은 사람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호의가 관심은 아닌데, 호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조차 나는 그런 사람이길 바랬던 것일까 싶다. 소속감도 대체 뭐라고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가,

어찌되었든 나는 친애하던 이에게 마상을 입었다. 그리고는 한걸 더 올려세운다. 나를 지키기 위해 또 한 번의 벽을 쌓고 쌓아, 다시는 보이지 말아야지 더 가볍고 더 멀어져야지. 다시는 욕심부리지 말아야지. 다가가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다 잡는다.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한다. 오늘의 나는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너무 난도질당했으니까 하고 애써 열었던 마음을 걸어 잠갔다.

#상처받은날 #마상입었다



노을이 싫다.

붉게 탄다며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노을을 바라보면 가슴 깊이 멍멍해져온다.

신나고 즐거웠던 날은 그 시간이 다 했음에 아쉬웠고,  
슬프고 우울했던 날은 그 시간을 써버린 것에 공허했다.

별건 눈동자에 노을이 배어들면 더 붉어질 뿐 위로가 되지 못했다.  
달의 장막이 붉은빛을 가리고 온 사위가 어두워질 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졌다.

#붉은노을 #멍멍한 #공허한



## 너부리n이상미 (1)

위기다.

이건 분명 위기상황이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촬영 실기 과제를 아직 촬영은커녕 컨셉조차 잡지 못했는데

오늘은 일요일이었다 그것도 오후.

손톱을 뜯으며 방안을 뱅뱅 돌던 그때 머릿속을 스친 건 공항 가는 3번 버스를 타면 지나게 되는 옆동네.

고도제한에 걸려 재개발이 안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떠나 지금은 폐가와 폐공장들만 남아버린 마을이었다.

가자 일단 가서 뭐라도 찍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에 시간을 보니 이미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버스 탈 시간이 없어...

급한 마음에 거실 소파에 누워 티비를 보고 계시던 아빠를 외쳤다.

"아빠! 나 오쇠동. 그 공항 가다 보면 있는 다 쓰러져가는 마을 있잖아 거기 좀 데려다줘"

"... 왜"

"아 과제땀에 그래. 해지기 전에 해야 한다고. 빨리. 10분이면 되잖아. 거기 버스 다니니까 데려다 주기만 하면 돼. 올 땐 내가 알아서 올게"

뻘히 보다 말없이 일어서는 아빠를 보고는 내방으로 달려가 카메라와 필름을 챙겨 집을 나섰다.

"거기 사람 안 산다"

"그래서 가는 거야"

"괜찮겠나"

"안 괜찮을 거 없어. 어! 저기 저 삼거리에 세워줘"

## 너부리n이상미 (2)

허리까지 풀이 자란 삼거리엔 뻗돌게 세워진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꽃혀있었다.

"갈게"

나는 두말없이 내려 이곳저곳 쏘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해가지면 끝이었으니 서둘러야 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다니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6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다시 삼거리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오니 회색 승용차가 서있었다.

우리 집 낡은 승용차.

차 안엔 아빠가 앉아계셨다.

"할 건 다했나"

평생을 남들 열 마디 할 때 반 마디 하고 살아온 경상도 남자.

"어"

그 경상도 남자의 딸.

"그래.가자"

그 아버지의 그딸.

#오쇠동삼거리 #3번버스 #그아빠의그딸

밤하늘에 구름을 띄워 안부를 보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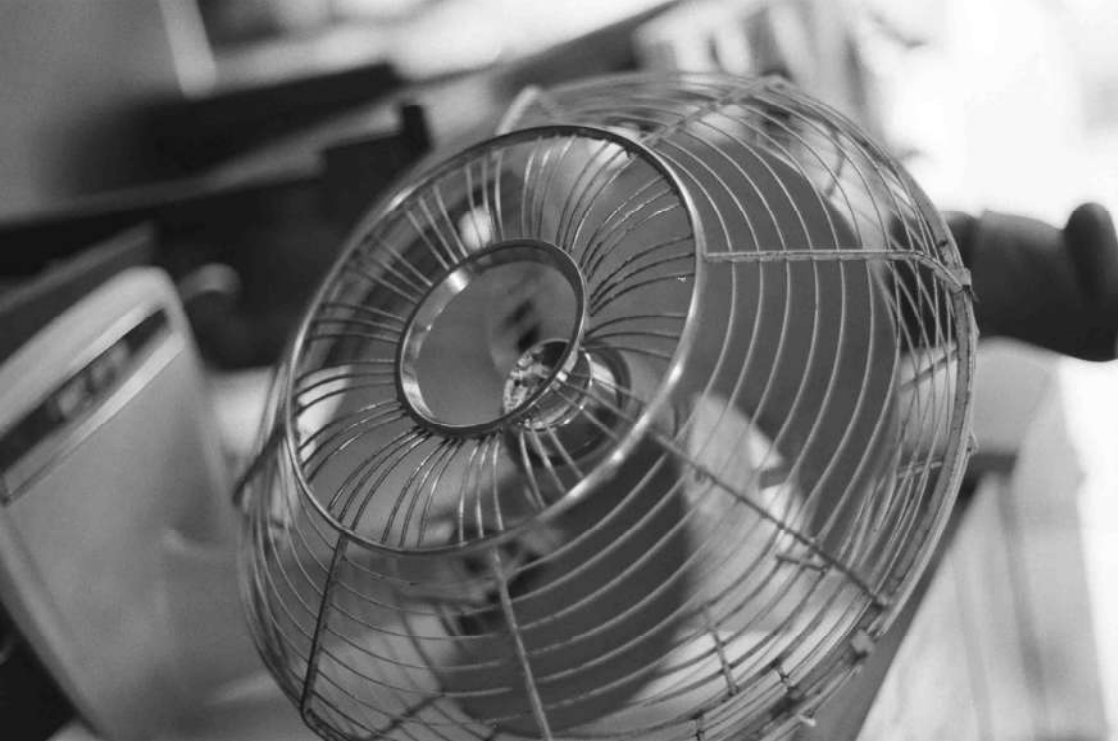
얼마 전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선선했던 봄에도, 질척이는 여름에도 그랬다. 쌀쌀해지는 가을밤이 찾아오는 요즘도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본다. 아무도 없는 고요함의 정적.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가로등 불빛이 흰해 별빛마저 사라져버린 그 하늘을 자꾸만 쳐다보고 있다. 하루를 보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고생한 내게 누군가 위로의 손이라도 내미는 기분이었다. 시달리고 분노하다 지쳐버려서 남아버린 하루의 끝에 조용히 닿는 느낌이 좋았다. 가만히 혼자 모니터와 씨름하다가 결국 사람이 없는 시간에 뛰쳐나가 하늘을 보았다. 쳐다보고 있으면 누군가 찾아오진 않을까, 곁에서 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생기진 않을까 했다. 그럼 나는 그 자리를 피해야겠지 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왔다. 어떤 날은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며 아직은 파란빛과 붉은빛이 완연히 남아있는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다. 우리가 느끼는 말 할 수 없는 감정들이 차고 밀려들어와 슬퍼지는 날도 있었다. 나의 하루를 온전히 말할 사람이 없구나, 어른이란 그런 건가 했다.

30살이 지나 콘서트를 같이 가줄 친구가 없어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이승환 콘서트를 갔다던 그 글에 어째서인지 나는 공감하고야 말았다. 우리의 30대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기만 했다. 뭔가 허전한 마음 한구석을 채울 방도는 없었던 걸까. 오늘 출근길에 넘어졌어. 하고 말할 곳이 없는 게 이렇게 슬플 일이었다. 고민했다. 상대방에게 편하게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상대가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무슨 저런 이야기까지 여기다 하고 그래'라는 말로 되받아치질 것만 같아 두려워졌다. 매일의 관계를 지레짐작하고 염려한다. 피해 주지 말아야지, 피해가 되지는 말아야지. 묵묵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겠지라고 여기면서 아무런 시도도 도전도 안 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 말할 곳이 없어 적기 시작했다. 요즘의 나의 쓰기는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뜨문뜨문 이말 저말 적다 보니 매일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 쓸쓸하고 서운해졌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사람에게 질척거리는 내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적어도 정상인처럼 살아야 하지는 않겠나 하고 매일의 나를 잘 다독거린다. 어려운 마음이 고스란히 관계에 나타나서,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어딘가 불편한 사람이진 않을까 생각이 생각을 물고 자라났다. 오늘의 나에게 너의 하루는 어땠니, 괜찮은 거니, 힘들었겠구나 하고 위로해 주는 건 2020년의 밤 하늘뿐이었다.

#밤하늘





최근 시내버스를 타고 자취방으로 가다 내 가슴 속 저 밑바닥 킁킁한 곳에 놓인 빈 소파를 떠올렸다. 가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앉아보는, 고독하고 오래된 한 자리를. 버스 창문을 여니 새삼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버스 운전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선 내일부터 정말 추워질 거란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름과 작별하는 날이다. 나는 이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이런 여름은 이제 없을 것 같은 예감에 쓸쓸했다.

숙소에 도착한 뒤 이 이야기를 오랜 친구에게 하자, 나보다 속 깊은 친구는 수화기 너머로 나직하게 말했다. 그런 느낌 앞으로 마흔여덟 번은 더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앞으로 내가 겪을 일들을 생각했다. 소설 바깥의 말과 입장에 대해서도. 그러니 너무 많은 것을 회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여름과 작별하는 일은 마흔여덟 번도 더 남아 있을 테니까. 세상에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앉아도 전부 경험하지 못할 많은 소파가 있을 테니 말이다.

잊기 좋은 이름 卍\_김애란

#쓸쓸함 #이별 #위안







토독토독 굴껍질을 까는데 니가 소근 거리며 말했어  
겨울 냄새가 난다고  
그날 손이 노래질 때까지 굴을 한 바가지는 깎던 거 같아  
내 옆구리에 붙어서 머리를 기댄 채 겨울 냄새가 난다며 쿵쿵거리는 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의 동글동글한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서.

나? 나 지금 과일가게 가고 있지  
또 손이 노래질 때까지 너에게 겨울 냄새 맡게 해 주려고 말이야  
어어? 웃지 마. 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심각하게 사랑스럽다고

#굴한바구니 #데이트하러가는길 #내마음마치굴밭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우산을 쓰고도 몸이 반쯤 젖어  
짜증 섞인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이제 막 내려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와하하  
비를 맞으며 즐거워한다.

그래.  
즐거운 사람들은 뭘 해도 즐거운 법이지.  
사실은 비가 성가셨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흐린 탓은 아니었을까.

#주구장창내리는비 #날씨 #장마









나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해를 보며 네가 왜 그렇게 행복해했는지.

일몰 뒤의 하늘까지 눈을 떼지 못한 채 여러 색들의 이름을 읊으며 그 모든 색들이 전부 사라져 결국 하나의 색만 남고 나서야 아쉬움 속에 발걸음을 떼던 너를.

매번 그 순간이 너무나도 짧아서 늘 아쉽다던 너를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요즘의 나는 곁에서 소매를 잡아당기는 너 없이 여전히 미적지근한 눈으로 네가 말했던 그 순간을 지켜보곤 한다.

내가 보지 못했던걸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라도 너의 감탄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속에.

나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정말 같은 하늘을 보고 있던 게 맞았을까.

내가 말하던 그 다채로운 색과 감동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럼에도 틈만 나면 바닷가로 차를 달려, 조용히 해지는 걸 바라보는 것을 쉬이 멈추진 못할 것 같다.

언젠가 한순간은 내가 보았던걸 나도 보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풍당 #빛이나는솔로 #색맹 #후회는언제나늦지

죽음에 대한 생각의 가장 큰 효과는 나일 강변에서 술을 마시든, 책을 쓰든, 돈을 벌든, 우리가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로 부터 가장 중요한 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덜 의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의 소멸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생활방식을 향해 눈길을 돌리게 된다.

불안, 알랭 드 보통, p299

#불안 #자기위로 #죽음의철학 #자존감



여주시 근처 자전거 종주 코스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양평 인증센터에서 돌아가야 했지만, 도장 두 개 더 찍으려는 욕심에 자전거 도로 위에서 밤을 맞이했다. 정확히는 임시 자전거 도로라고 해야 할까. 일부 구간이 공사 중인 터라 돌아내려 갔던 길이다. 낮에는 사방이 나무인 산길로만 보였는데, 밤에 보니 골 사이로 도심이 보인다.

왼쪽 눈을 감고, 엄지를 치켜올려 오른쪽 눈 바로 앞을 가렸다. 그리곤 천천히 팔을 뻗었다. 완전히 뻗었건만 야경 빛은 엄지 양쪽으로 겨우 세어 나올 만큼 작다.

나는 저곳에서 얼마나 치열했다. 지하철에선 누가 먼저 앉을세라 눈치 보고, 점심 시간은 조금 더 쉬어보려 허겁지겁 밥을 먹고, 퇴근 후엔 도태될 두려움에 책상에 앉아있고 그리고 생각조차 싫은 업무시간. 잠깐의 여유도 없는, 아니 불안함에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그 정도의 치열한 삶. 내가 영혼을 태웠구나, 겨우 엄지손가락만 한 빛 내려고.

#야경 #치열한삶 #불타는인생

커피 마시러 갈래요?

게스트하우스의 넓은 테이블을 둘러앉은 사람들은 각자의 얘기를 하느라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고

나는 소란을 틈타 너에게 밤 산책을 가자 했다.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는 시끄럽게 떠들긴 좋았지만, 우린 아메리카노 한잔을 마시기위해 동네 유일한 편의점까지 가로등도 없는 길을 30분 넘게 걸었다.

조금씩 어둠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눈으로 별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늘에 이렇게 별이 많았어요?

너무 밝은 곳에 있어서 안보였던 거겠죠.

가로등도 흔한 간판이나 네온사인도 없는 이차선 도로.

지나가는 차에 치이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크게 앞뒤로 흔들며 걷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 이름 모를 벌레소리가 멈췄다 이어지기를 반복하던 길.

내 기억 속 최고의 밤 산책.

#고산리밤산책 #손전등필수 #다음엔은하수보러가자

별을 세다 말고, 선명함에 마음을 빼앗긴 달명.

어두워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흐린날엔 보기 어렵고, 맑은하늘 어두운 곳에서만 유난히 반짝거리는 별을 보고있다면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천문대에 가지 않아도 일상속에서 별이 보이는 일이 흔치 않아서 더 그렇다. 오늘따라 유독 그 반짝임에 설레여서, 집에오는 길 내내 하늘만 바라보고 걸었다. 이 하늘이 그렇게나 그리웠던가.

아마 오늘의 하늘에 화룡정점을 찍은 것은 달이었겠다. 모양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가장 밝은 모습으로 내비치는 반짝거림이 더할나위 없이 좋았다. 그러니까, 주변의 별들이 잘 안보일만큼 밝았는데, 보름달이 뜨는 추석이 곧 당도하긴 할건지 반짝거리는 하늘을 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삼삼오오 모여 맥주한잔에 마음도 기울이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집밖을 나와 풍냥풍냥하게 산책도 하고 그랫을텐데, 부쩍 인적이 없던 공원에서 우두커니앉아 이 시국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라게되는 것이 아쉬웠다.

달도 별도 아름다운 밤이니까.

내가 별다른 수식어구가 없어도, 오늘밤은 아름다웠다고 할란다. 행복했고, 즐거웠고, 아름다웠고, 반짝거렸던 밤이었다.

#달명 #반짝거림 #하늘 #아름다움



태풍이 지나가고  
청명한 하늘이 반겨준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  
하나 둘 모여든다.

모두가 지쳐있지만  
햇빛과 자연 속에서  
머물다 간다.  
언제 태풍이 왔냐는 듯이

#공원 #일상 #코로나





“것 봐, 좀 나눠서 듣자니까. 그렇게 떨어뜨릴 줄 알았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도 못 들어봤어?”

그녀는 무심하게 허공을 응시한다. 마치 내 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에 더욱 미칠 것 같다. 어떻게 똑같은 얼굴로 저렇게 화를 돋우는지. 사람들도 우리가 똑닭았지만 실상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에 놀란다. 나는 하도 놀라서 더 이상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지만.

“못 들어봤냐구.”

“이건 오렌지야.”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애초에 나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 방법이 먹힐 리가 없다.

“너는 앨리고.”

“그래. 이견 바닥이고 저견 오렌지야. 아니, 떨어진 오렌지지. 세상엔 그냥 오렌지와 고집쟁이가 떨어뜨린 오렌지가 있어. 둘 중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 넌 뭘 먹을 까?”

“네가 오렌지를 주워다 내 팔 위에 얹어놓으면, 그건 다른 오렌지들과 다를 바가 없어. 둘만 아는 비밀이 되는 거야.”

같은 유전자 아니랄까봐 받아치는 건 잘하네. 하지만 뭔가 네 말 그대로 따르는 건 자존심 상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 있기만 한다면…….

“앨리, 거울 앞에서 뭘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지? 오렌지는 아직 떨어졌을까?”

것 봐, 선생님은 성질이 급하시거든. 나는 썩 한 번 웃고는 선생님을 향해 종종걸음으로 걸어간다. 선생님은 오렌지를, 우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건 불가능하겠지. 두 사람만의 비밀이니까.

#고집쟁이 #독선적인



천년쯤 아니면 만년쯤, 온갖 짓에도 결국 관속이다.  
간간이 올려오는 떨림으로 짐작 정도는 했지만,  
눈으로 귀로 입으로 음미하고픈 갈증은 해소치 못했다.

이곳이 안락하게 느껴졌던 건 언제부터일까.  
빛을 못 본 세월 동안에 비하면 그리 오랜 일은 아닌 것 같다.

지면으로 올리는 떨림으로 세상의 치열함이 전해진다.  
이토록 길고 요란한 진동이 생에 있었던가.  
이보다 치열한 전투는 없었을 거다.

빛의 목마름은 여전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두렵다.

#눈감으면 #코베이는 #세상 #치열한 #현실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그런데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슬프면 난

기쁨과 슬픔 딱 그 사이더라

그 당시 中\_이광호

#기쁨과슬픔의중간





플로어의 열기는 다가서면 데일듯이 뜨거웠고 음악은 고막을 넘어 온몸을 두들겼다.

한겨울의 꿀벌들처럼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열을 올리는 모습은 도화선에 불이 붙은 폭탄같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아 보였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눈을 때리는 조명, 쏟아져내리는 음악에 어깨가 짓눌렸다.

몸을 뒤로 젖혀 의자에 파묻히듯 앉은 채 멍모르고 가빠진 호흡을 가라앉히기 위해 느리게 숨을 내뿜었다.

후우

내뿜는 숨 한 번에 무대가 조금씩 멀어져 갔다.

후우

대형 수족관에 머리를 집어넣은 듯 귀를 때리던 날카로운 소리들은 뭉그러져 낮게 웅웅거렸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물속을 유영하는 열대어들처럼 화려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순간, 숨이 막혔다.

목구멍에 무언가 울컥.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에 그곳을 뒤로하고 뛰쳐나왔다.

허겁지겁 숨을 들이키는 등 뒤로 소리들이 새어 나왔다.

터질 것 같은 열기, 아름다운 사람들, 크리스털 잔들이 높게 부딪히는 소리, 쏟아지는 조명과 음악.

한데 뒤엉켜 물속에 잠긴 듯 멍멍하게.

순간 다시 저곳을. 수족관 속의 아름다운 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올랐지만 침과 함께 꿀꺽 삼켜버린 채, 등을 돌려 걸어갔다.

갑자기 아가미가 돌지 않는 이상 숨 막혀 죽을 거라 생각하며.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타인과는 결코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충실하면, 다시 말해 금기를 잘 지키면 사회적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회적 존경의 놀리 이면에는 금기를 넘어서려는 욕망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이란 이와 같은 강렬한 금기 위반에 대한 욕망을 잠재우려는 미끼라고도 볼 수 있지요.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강신주, pp. 114~115

#에로 #욕망





신음소리인지 고함소리인지 모를 소리에 영우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을 때, 사위는 어두웠고 방안엔 그 혼자 뿐이었다.

이사 온 집의 짐을 정리하다 잠깐 쉬다는 게 시간이 꽤 흘러 버린 모양이었다. 그때 다시 들려오는 소리에 침대에서 텅기듯 일어난 영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자신이

잠들기 전 아내가 정리하고 있던 작은 방 쪽이라는 걸 깨달았다.

작은방문을 열자 보인 것은 몸을 웅숭그린 채 울고 있는 아내, 정화였다.

[정화야..]

가만히 다가서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정화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정화가 고개를 들고 품에 움켜쥐고 있던 걸 내밀었을 때 고요하던 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주 보이는 정화의 얼굴처럼.

하얗게 불거진 정화의 손이 움켜쥐고 있던 건 수건이었다.

이정우 왕자님 칫돌 기념이라 쓰인 하얀 수건.

답례용 선물이었지만 누구에게도 건네 진 적 없는 기념품.

아들 정우의 손 한번 닦아줄 수 없었던 수건이 아내의 눈물에 젖어 가고 있었다.

영우는 그저 얼굴을 일그린채 몸을 낮춰 정화를, 아내를 품에 안았다.

그 수건에 눈물을 보태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수건 #짐정리

사실, 그즈음 내 주머니는 허당이었다. 그러나 한번 한 말을 도로 담아 넣을 수는 없는 일, 나는 일식집 문을 너무도 당당하게 열어젖혔다. 그리고 주문을 했는데, 알탕에 생선초밥, 그게 전부였다. 음식이 나오고, 빈약한 상차림에 스스로가 멧쩍어 나는 서둘러 먹자 하고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한참을 아버지와 나, 그리고 향이가 수저질을 하는데도 어머니는 도통 가만히만 계셨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나 싶었다. 다른 걸 시켜 드릴까 싶었다. 상차림이 민망해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나는 그리만 생각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그 눈을 봤는데 눈물이 그렇게 울고 계셨다. 눈물이 날 만큼 좋으셨던 것이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랑 받아나 봤겠니.'

내 어머니는 그렇게 싸구려 효도에도 감동하는 그런 분이였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두고두고 못 잊는다. 내 얼마나 그녀 알기를 소홀히 했던가.

참 묘하다.

살아서는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더니,  
그 이상은 아니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녀 없이 살아가니 참 묘하다.

나는 바란다.

내세에 다시 그녀를 만난다면,  
다시 그녀의 막내딸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申\_노희경

#그리움 #회한 #미안함





“아니, 대낮부터 술을 그렇게 마셔서는. 눈 풀린 것 좀 봐요.”

“딱 한 잔만 마셨다니까 그러네. 분위기 맞춰주려고 마신 거야. 분위기.”

남자는 눈을 가름하게 뜨고 캔버스를 바라봤다.

“그나저나 그건 뭘 그리는 거야?”

“언제부터 당신이 내 그림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제부터 가져볼까 하고.”

취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듯 남자는 더욱 몽롱한 표정이 되었다. 여자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18년짜리 묵은 원한이 호수 밑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어때요, 그래보이나요?”

“뭘 표현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 분명 한 잔 밖에 안 마셨는데…….”

남자는 서서히 뒤로 고꾸라졌다. 뒤이어 호수에 큰 파문이 일었고, 여자는 그림을 마무리하듯 세밀한 붓터치를 끝내고 천천히 캔버스를 살펴보았다.

“너무 늦었어요.”

#나른한오후 #나른함속의서스펜스 #아무도모르게



"가지마 제발"

나의 간절함과  
사람들은 몸을 흔들며 섹스 어필할 뿐이다

"내 잘못이야"

빠질 수 없는 자리였지  
못 믿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미안해

"날 떠나지마"

너 없이 산다는 생각해본 적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가지마

: "그만하자 피곤해"

#누가먼저였을까 #절망 #슬픔



익숙한 것이 낯설게 보일 때 자유를 느낀다. 낯설을 새로움의 토대라 일컫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론 생산성에 가까운 의미라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호기심이라고.

창조, 창의성과 같은 단어는 결과가 중시된다.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결과물에 따라야 하는 이유다. 거의 창조 수준에 달하는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고안하더라도,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그려지거나 혹은 글로 표현되지 못하여 타인과 공유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다. 다시 말해, 타인으로 하여금 새롭다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생각은 소각되고 만다. 하지만, 호기심은 타인의 관심을 필요치 않는다. 감정을 표현한 단어로 스스로의 내면에 더 닿아있다. 억지로 자아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

낯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 낯설은 꺾어보지 못했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무엇을 마주할 때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니까. 하나, 낯선 것이 일반적으로 꺾어보지 않을 상황들이라는 걸 고려할 때, 그 안에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있다. 새로이 꺾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이다. 그곳에 기존의 틀은, 고정관념은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다. 내 방식대로 내 법칙대로 새로운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낯설은 호기심이고 자유다.

누구나가 다 낯설에 호기심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발견된 자유를 되려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낯설을 통해 느끼는 호기심과 자유를 즐길수록 정신적 삶은 더 풍부해 지리라는 것이다.

#낯설 #자유 #새로움 #호기심

기어코 세계가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수복하기 위해 움직여야만 했다. 사물들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여야만 그 자리에 뭔가가 있었다는 사실이라도 남길 수가 있었다.

아무도 말을 꺼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이 시급했다. 다들 공통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 이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불가능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갈구할 뿐이다.

하지만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에겐 이름이 있고, 다들 고유한 이야기를 갖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했던 노동의 시간을 잊어야만 한다. 세계가 복원되더라도 우리는 함께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치욕스럽기까지 했던 고통을 잊기 위해 서로를 모른 채 할 것이다. 연대는 연대에서 끝날 뿐 그 너머에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더욱 절실한 이유가 필요하다.

#회사생활 #멀망 #다급함 #필사적인 사람들

나는 돈을 갖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자본을 갖고 싶어 하는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자본가가 되고 싶은가. 나는 부자인가 자본가인가. 지금 우리 사회의 책임성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 할 질문이다.

경계에 흐르다, 최진석, 211p





보고싶어 잠 못들던 밤  
눈 뜨자마자 전화하던 아침  
궁금해 묻고 또 물었던 안부

만날 날 손꼽아 기다리던 시간  
두근거림으로 맞이하던 아침  
이불 아래 속살거리던 밤

사랑으로 남아

나는 그저  
당신의 반복된 일상,  
한 부분이 되었다.

#반복된일상 #잊혀진설렘 #휘영한

그런 날들이 많았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했던 날.

방안의 전등을 모두 켜봐도 시야는 어둡기만 했다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가슴 언저리가 사무치게 चु던 날.

손끝 발끝까지 저리게 시려 몸을 동그랗게 말아봐도

내 자신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던 날.

누군가에게 울고 소리쳐 내 속을 다 뒤집어 보여주어도

돌아서면 뱃속 가득 차가운 얼음들이 서그럭서그럭 부딪혀 으깨어졌다.

너에게 듣고 싶었다.

따뜻한 그 한마디가

너에겐 버거웠고

나에겐 간절했던

끝끝내 듣지 못한.

#다지난일 #따뜻한 #말한마디 #한숨

나는 분명 금붕어를 바라보는데  
금붕어는 보이지 않고  
너만 보인다.

온통 너의 생각이 가득 차올라  
다른 것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뼈끔 뼈끔)

반면에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평온해 보인다.

#나홀로 #바라본



길가에서 꽃을 마주치게 되면 꽃의 이름 보다 꽃말이 궁금했던때가 있었다.  
사랑. 슬픔. 그리움. 후회. 질투. 충절. 배신....  
그럼 의미들이 꽃들과 무슨상관이 있다고..  
온갖 사람의 감정들이 자신에게 붙어 있다는걸 꽃들은 알고나 있을까.

저 꽃이 아름답다는것 말고 사람이 숨겨놓은 의미들 위해 피어나야 할리 없다.  
꽃은 그저 꽃으로.  
바라보는 나는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찾아온 계절을 사랑하듯이.

코끝이 시리다가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간밤에 무탈하게 잘 주무셨는지요. 말을 할 때 무난하게 꺼내기 좋은 주제가 날씨이야기라고 해서, 살짝 건네보아요. 오늘 밤엔 조금 추울 수도 있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셨길 바라요. 그날, 잠깐 마주한 이후로 당신이 나를 계속 쳐다보았던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나의 착각일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던 날 같아요. 별 좋은 날 밖에 나가 걸으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조심스레 말을 섞고 그러는 동안 참 좋은 사람이란 걸 새삼 또 느끼고야 말았습니다. 차근차근 말하는 당신은 조심스러운 사람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고요. 저는 기복이 심한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리 차분할 수가 있을까. 신나는 이 앞에서 가장 신나고 행복해지는 것보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일까. 신기했습니다.

글을 쓰다가 문득,

이 글들을 당신이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부치지 못할 편지가 될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는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행여 당신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저 욕심부리지 않고, 가끔 만나고 얼굴 보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예요. 더 바라면 뭔가 사치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문득문득 이렇게라도, 마음이 새어 나오듯 말이 새어 나올 때마다 흠칫흠칫 놀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많은 감정들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오늘도 계절의 변화 역시 설레는 일이라는 핑계로 내 마음을 살짝 덮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유독 당신이 보고 싶네요.

#부치지못할편지 #계절 #보고싶다

흔하게 보기는 쉽지 않은 어여쁜 꽃이다. 기념삼아 꺾어가고픈 꽃이다. 어디선가 들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가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둔다고. 좋아해서 꺾어가면 꽃이 죽지만 있던 곳에 그대로 두면 꽃이 계속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꽃에게 그닥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꽃에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꽃에게 아무 짓도 안하고 그냥 갈 것이다. 꽃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랑해서 그 곳에 놔두든 관심이 없어서 그냥 놔두든 그냥 지나간 사람이다. 가끔 누군가의 무관심이 위안이 되는 이유가 사랑해주는 사람의 반응과 언뜻 비슷해서 일 수도 있겠다.

#예쁨 #희소성 #가만히 #Let it go #내비둬





사람 사이는 늘 애매하고 흐릿해서 정확히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그저 안개등을 켜고 브레이크에 발을 걸친채

질게 긴 안개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저쯤 어디에 있겠지 하는 예상만으로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잘 작동하길 바라는 마음뿐. 나 혼자 안개등을 잘 켜고 안전거리 잘 유지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건 아니더라.

그게 무섭다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버릴 수도 없는 길일. 안개가 걷힐 리 없는 이 길을 한껏 눈을 찡그린 채 저쯤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의 브레이크등을 기다리며 지나가는 중이다.

#안개속 #간격 #사고다발지역 #경고등

산을 반쯤 집어 삼킨 안개가 두렵다면  
그것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내 자신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시작하는소설을써보면좋을것같은 #적적함 #아득함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겨울의 한고비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겨울 가운데에서도 초겨울 무렵을 매우 사랑한다. 가을로 친다면 늦가을이요, 겨울로 친다면 초겨울인 11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그 한동안의 어정쩡함과 썰렁함을 사랑한다.

추수 끝낸 들판에 노리끼리한 햇살이 빗금으로 떨어져 금실거리고 있다. 아직도 무엇인가 미진한 듯한 느낌이 거기 머물러 꾸물거리고 있다. 멀고 가까운 산의 능선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기 시작한다.

이즈음이면 우리나라 산들이 그럴 수 없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출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나 또한 부드러운 눈빛과 숨결을 되찾아본다.

오늘도 네가 있어 마음속 꽃밭이다 申\_나태주

#썰렁함 #꾸물거림 #평화로운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야 물을 찾을 수 있을까?

음...

일단 뛰어보자.

이대론 아무것도 되질 않을 테니.

#고민따위 #쓸데없다 #일단 #저질러

그녀는 도심에서 개구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글썄요, 라고 대강 말을 흐렸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녀는 이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내 머릿속의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정리 된 이후였다.

“개구리가, 어쨌다고요?”

“네? 아니요. 별 얘기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침묵.

“어쩌면 다음 세대 아이들은 개구리가 어떻게 우는 지조차 모를 지도요.”

난 어색한 침묵을 깨트리기 위해 굳이 개구리 토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한 무응답.

“개구리는 개굴개굴 울어서 개구리인데.”

왜 난 어색하면 말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걸까? 그리고 꼭 나중에 후회했다. 개구리 따위, 알 게 뭐가. 난 근 십 년간 개구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개구리는 이미 내게서 잊혀진 생명체였다. 선캄브리아기에 생존했다는 생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근데 왜 이 여자는 내게 고대 생명체나 마찬가지로 생물에 대해 언급해 놓고, 이제와서 별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니 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걸까.

결국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갈림길에 다다를 때 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녀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다만 그냥 잘 들어가라고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왔을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난 그 다음 날부터 도심에 있는 온갖 복개천들을 돌아다니면서 개구리를 찾아다니는 내 모습을 제 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게 맞는 것 같았다. 이제와서 생각해 보면 말이다. 그때는 오랜 시간 이어지는 불편한 침묵이 답답했기 때문에 그녀가 말을 좀 했으면 하고 내가 조금해줬던 것이었다.

하지만 꿈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렇게 몇 주를 시달리던 나는 현실에서 개구리를 찾아 나서기에 이르렀다.

“어딜 가면 도심에서 개구리를 볼 수 있죠?”

라고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다만 나는 그녀가 그러했던 것처럼 묵묵히, 사실 이야기 상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지만, 아무런 말 없이 개구리를 찾아다녔다. 그래서 결국 개구리를 찾았냐고? 글썄, 그건 다음 번 그녀를 만날 때 까지는 누구에게도 비밀이다.

#잊혀지는것들 #너의목소리가안들려



풀잎 위의 청개구리. 보호색을 하고 잘 숨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귀여운 뒷태가 다 보인다. 나도 아닌 척, 나는 아닌 척, 모르는 척, 있어보이는 척 가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 보일런지도... 부끄러움이 몰려온다

#다보인다 #포식자 #상위계급 #지배계층 #미물 #상자속 재미



질문에 잠식되어

무슨 말을 적어야 할까 아니 적지 말아야 할까. 삶이 내 맘과 같지 않다고 해야 할까 애초에 마음처럼 되는 삶은 없다고 해야 할까. 어쩌면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일단 적어봐야 할까 마지막이 아니니까 적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야 할까. 어느 날 그렇게 오랜 시간 하늘을 올려다보고 어떤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나를 기억이나 할까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을 포기해버렸을까. 대상이 사라진 글에 무슨 효용이 있을까.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그 무의미한 시간을 무의미한 글들로 덮어내면 보란 듯이 사라져버릴까. 애초에 사라진 대상에게 효용을 바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을까. 여름이 그렇게 가고 겨울이 왔는데 행복했다가 행복하지 않다가 자신 있다가 자신 없다가를 수차례 반복하면 나아질까. 질문의 질문으로 무장하고 또 다른 질문으로 다가서면 질문이 사라질까. 아니 질문은 현존하듯 그 자리 그대로 번식하고 생성되며 그렇게 쌓이고 쌓여 어느 샌가 나를 잠식하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것은 그럼 나일까 나는 아닐까. 너는 너로서 존재하는데,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미 이루어놓은 그 무수히 많은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될까. 안된다면 어쩔 수 없고.

하루는 짧아졌고 한밤중의 시간은 길어졌으며 나는 간절하지만 현실은 짧아진 겨울밤만큼이나 더 집요하게 어둠으로 끌고 들어갔다. 타는 목마름과 갈증에 허우적되는 것은 너의 사정일 뿐이라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봄이었고, 나의 한 해는 더 외롭고 쓸쓸해진 겨울밤이었다. 성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가두어버린 겨울 왕국의 엘사처럼. 나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다.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멍하니 고려하던 집요함 들을 하나씩 나열한다. 그

것이 오늘 해야 할 일들일 때도 있고, 읽고 싶은 책일 때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일 수도 있고, 지나간 옛 애인들의 흔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색과 사유의 시간이 없다면,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없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삶을 살아보려 애쓰고 있겠다. 나는 온데간데없이 꺾테기만 나인 형태로 그렇게 살아가겠지.

가끔은 글을 쓰는 일이 임금님의 대나무숲과 같아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공간에 나의 사념과 감정 증오 때때로 행복을 남겨두기도 한다. 남이 보길 바라서라기보다 그 플랫폼의 형식이 편하기 때문인데(그래서 오탈자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아쉬운 건, 플랫폼 내부에 유입되는 지인들이 많아지니 무언가를 쓸 때마다 부담스럽다. 모르는 척 넘어가도 괜찮은 일에 애써 얼굴 마주하면 아는 체를 해서 고맙기도 하고 적어둔 그 모든 게 전부는 아니라고 꼭 말해주려다가 참아버린다. 어차피 말해봤자, 그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테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대상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한다.

#대나무숲 #sns의위험성 #글쓰는나

복잡하게 엉켜있다. 왜 화가 나는지 알 수 없다. 신경을 건드리는 너 때문인지, 무심했던 나 자신에 대한 분노인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파악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을까? 솟아오르는 감정 때문일까? 왜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복잡해 보이는 것도 따라가보면 규칙이 있다. 하나씩 따라가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었는지 알 수 있다. 복잡한 그 속에는 너와 내가 이어져있다. 차분히 바라보면 복잡함 속에 규칙이 있다. 그 규칙 속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진다. 심각해 보였던 것도 지나보니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다.

왜 복잡하게 느껴졌을까?

#복잡한





차가워진 공기, 가을

올해의 여름은 부쩍 여름 답지 못하게 보였다. 뜨거운 태양을 마주한 날들보다 습한 공기와 빗속을 거닐었던 날들이 많았다. 푸른 초록과 연한 파랑의 하늘을 함께 보던 시간 대신 빨간 우산의 살대의 개수를 세면서 이 계절이 끝나면 이 비도 끝이 날까 하고 생각하던 날들이었다. 게다가 전염병이 창궐한 슬픔과 날씨의 우중충함이 합쳐져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기분이 싫어져,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가길 바랐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제는 좀 살만해지지 않을까를 기대하면서 매일을 그렸다.

갑작스레 마주한 가을은 즐길 수 있을까 싶다가 가을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여전히 도시 곳곳에 창궐한 이 병세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모두의 희망이 되었고, 봄도, 여름도, 집안에서만 보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붓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 간절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또 이해하게 되어버린다. 단순한 계절의 변화로 인한 잦은 재채기와 콧물인데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그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들어서 걱정에 빠지지 않게, 이 확실한 계절의 변화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름이 올 때도 그렇게 걱정했는데, 가을이 올 때도 그렇게 걱정하게 된다. 걸리면 걸리라지 하던 단순한 감기는 매년 잘 지나갔으면서도 전염병 앞에서 약해지는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유독 나의 안위보다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이구나 깨닫게 된다.



어느새 그렇게 금방 떠나버렸는지. 여름이었던 날들이 자연스레 가을로 바뀌고,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날들이 곧 오겠다. 시원한 맥주 한 잔에 목을 축이던 우리는, 선선한 밤공기에 가락국 수한 그릇 시켜두고 소주를 먹다가, 어묵탕 앞에서 사케를 기울이겠다. 간밤에 비가 내릴 땐, 빗소리를 들으며 지난 옛 애인 생각도 한번 하다 잠들겠지.

그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고 싶다.

우리가 다시 작은 행복들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평범한일상 #코로나싫어 #가을 #여름은다가고 #전염병



집에서 나와 일단 걷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보폭을 넓게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바로 보폭을 넓게 걸었습니다. 지난겨울을 생각해보니 신기하게 겨울이 되면 살이 빠졌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하철 2~3 정거장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 집에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추워 보폭을 넓게 하고 걸었습니다. 보폭을 크게 걷다 보면 체온이 올라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보폭을 크게 걸었던 것이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을 주었나 봅니다. 당분간 보폭을 넓게 걸어야겠습니다. 연휴 때 열심히 먹어 불과 턱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쉬기만 한 것은 아닌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더욱 나가서 걷습니다. 걷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은 알코올이 날아가듯 금세 날아가 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나면 그 공간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이 차오릅니다. 좋은 생각도 떠오릅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휴대폰을 열어 간단하게 메모를 합니다. 적지 않으면 하늘의 새처럼 금방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날에도 모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연휴에는 <사장의 생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끄미라는 자리가 사장이라는 자리와 많이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과 반성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경영자는 직원들이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신의 외로움을 직원들과 나누려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힘들다는 이유로 나의 감정을 알아주고 나누길 바랐습니다. 외로움을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속될 경우 함께 가는 동료들이 불안해진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모른 척 한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서른이 넘었는데 아직도 스물다섯의 머문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공원 한 바퀴 돌듯이 지금 내딛는 발걸음이 모여 바라던 모임이 되리라 믿습니다.

복 이끄미n최광복 (2)

나는 오늘도 걷습니다.

#걷기 #반성 #다짐 #에너지 #나아갈길

난 밤이 좋다.

맘껏 슬퍼해도 내 슬픔은 저 불빛들 하나만도 못한 빛을 내기 때문이다.

난 밤이 좋다.

아무리 기뻐해도 저 반짝이는 불빛들 하나만큼도 찬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 밤이 좋다.

내 거짓들이 그럴싸한 이유들을 저 불빛들 속에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난 밤이 좋다.

아직 진실이 되지 못한 내 속내들이 아우성치는 밤이 좋다.

그런 찬경이도 세계가 우리를 살해하기로 결심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세랑\_이만큼가까이\_p193)

작은 세계 속에서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어쩔지 불편하다. 단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소설 속 그 말이 꼭 내상황과 같다고 느꼈다. 단지 타 공동체의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지금 존재하는 두개의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있으면서, 외부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다고 하여 질타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비판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여전히 며칠 전 그 일에 머물러 있는 나지만, 정세랑의 책을 보며 위로를 얻는다. 그 유니폼이 너의 전부도 아니고 너의 삶이 나뉘었던 것도 아니라고 대신 이야기해주는 기분이었다. 유니폼은 그저 소속감일 뿐인데,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소속감을 주지 못하는 유니폼에 대한 서운함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소속되지 못했을 때의 불안과 위화감은 누가 알아줄까. 난 그래도 이 모든 게 아직 좋은데. 이 밤의 이 공기, 귀갓길의 쓸쓸함마저 이제 좋아져버렸는데, 만약 이 순간들을 내게서 앗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밤이다.

#정세랑 #이만큼가까이 #유니폼 #소속감



이틀째 술이다. 술 찌든 냄새가 살 속까지 파고든 것 같다. 버스로 4시간이나 걸리는 곳까지 와서도 결국 술인가. 원래 MT라는 게 그렇대도, 친한 친구들끼리도 이 모양이라니.

어스름히 어둠 내려앉는 저녁, 오늘도 반복되는 술자리를 위해 알코올을 충전하러 가는 길이다. 호수를 돌아 편의점까지는 30분 정도려나. 사실 게임에서는 이겼다. 요리도 설거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내일 아침 이대로 떠나자니 허탈할 것 같아 내가 다녀오겠다고 했다.

터미널 방향은 반대편이라 이곳으로는 처음이다. 펜션에서 본 호수 경치가 좋았던 터라 가까운 곳에서 보고 싶었는데, 이왕 온 김에 어슬렁 거리다 돌아가야겠다.

#mt #원래그래 #허탈



이번에는 내가 아주 하찮은 일로 헤어지자고 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긁어모아 유럽 여행을 떠나 있었던 나는, 내 전화를 (내가 느끼기에는) 무성의하게 받는 그 애에게 이제는 끝이라고 메일을 보낸 뒤 빈의 벨베데레궁 연못에 커플링을 던져버렸다. . . .

우리는 방금 전까지 폭우가 쏟아져 한껏 습하고 축축해진 시부야 거리를 나란히 걸었다. 원래 가려던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결국 체인점 술집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가볍게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예약을 해둘걸 그랬네. 아쉬운 표정으로 그 애가 여러 번 말했다. 식당 예약이라니, 대학생 때의 우리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위였다. 우리가 사회인이 된 것이, 각자 떨어져 통과해온 시간이 느껴져서 기분이 이상해지려 했다. . . .

하나도 재미없었다. 과거가 대체 무슨 소용인가. 즐거웠던 추억담만 대충 늘어놓고 헤어질 뿐인 만남은 없는 편이 낫다. 동창회에 온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나는 대체 이 애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인가. 그것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그만해, 앞으로에 대한 얘기나 하자.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 애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다.

아무튼, 하루키 中\_이지수

#사회인으로서 #무의미한추억 #어색한



확신하는 것은 두렵고, 도망치는 것은 무서워  
모호한 중간에 안식한다.

O도 X도 아닌 선 가운데 선채,  
완전히 넘어가지도, 완전히 넘어오지도 않는다.

A도 B도 선택하지 않은 채  
모호한 말로 떠 넘기고 애매한 말로 회피한다.

#선택 #선택장애 #회피

몸이 불어나는 것을 느낀다. 거울 속 턱이 둔해지기 시작했고 바지가 살에 치여 버거워 하고 있다. 체중계에 올라가니 어김없이 숫자가 높아졌다. 이 기세라면 신 기록 달성은 시간문제다. 대책이 시급하다. PT라도 신청해야 하나? 사실 신청하고 싶지만 사악한 가격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다.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을까? 고민 끝에 찾아낸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걷기다. 점심시간, 퇴근길, 저녁을 먹고 툼툼이 걷는다. 두 번째는 턱걸이다. 하루에 한 세트만 제대로 해도 효과가 있다. 점심시간 때에 근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철봉을 이용하여 턱걸이를 한다. 천천히 1세트만 해도 숨이 차오르고 근육이 아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두 가지 운동을 시작하고 5개월 동안 5kg를 감량했다. 턱은 모르겠으나 바지와 살 사이에는 쉬어갈 여유가 생겼다.

#가성비 #운동 #걷기 #턱걸이



투둑투둑투둑  
빗소리 가득한 택시에서  
네가 떠올라

미처 다 흘러내리지 못한  
빗방울이 남긴 점묘화 속에서  
네가 보여

이렇게 그리운 건 사랑일까  
너를 사랑했던 내가 그리운걸까

이어 택시가 멈추고  
현실에 발을 내려

더이상 그림지 않아

#비오는날택시 #그리움 #다짐

부러운 사람이 생겼다.

나대로 사는 게 좋을 뿐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고무줄마냥 느슨한 사람인 나에게  
저렇게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는 정력과 매일 저녁 소주 1병을 마  
신다는 체력.

이 순간 내가 부러운 사람은 송해 선생님. 그래 그분이시다.

송해 선생님이 머릿속에 떠오른 그 순간 그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코끝에 짙은  
알콜의 향기가 스쳐가는것 같았다.

지금 내게 뭐가 부족한 건지 너무 뻘뻘 보이는것만 같아 적잖이 창피하다.

결혼도 안 한 처자의 장래희망 비슷한 것이 정력과 알콜이 넘치는 아저씨라니.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만 같아서 신이 난다

달리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한 바퀴 더 돌 수 있을 거 같다.

#장래희망 #1병장수 #아침달리기의목표 #정력과알콜 #욕망덩어리





당신의 작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분홍빛을 만들어요.

이상하게도, 작은 말 한마디에 두근거리고 설레는 날들의 연속이다. 이를테면, "소설이랑 에세이를 읽는 건, 진정한 독서라고 볼 수 있죠."라던가. "리딩을 주겠어요."라던가. "보고 싶다."라는 한마디에도 설레고, 친구의 소중한 말 한마디에도 심쿵 해서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야 만다. 작은 것에 심장이 요동칠 때마다 나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 이 설렘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무지렁이지만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야 만다. 다수의 사람을 어떻게 한꺼번에 좋아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 그저 난 당신이 나의 지인이라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지인이 좋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깐 오래오래 보고 싶은 거죠.라고 말하겠지. 그렇게 매일매일 핑크빛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하늘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건지, 가을만 되면 부쩍 핑크빛을 보여준다. 하루 종일 설레고 설레서 말그레해진 내 볼 이랑 비슷하니까, 나는 그럼 또 하늘이 좋아져서는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 너의 하늘은 어떠했느냐고 꼭 물어보고 싶은 사람 여럿에게 마음으로 안부를 보낸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나면, 잘 살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막상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서먹서먹하진 않을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하여 내 연락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돼버려서, 크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이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좀 달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자꾸 닿는 사람들은 언제나 참 깔끔하고 매력이 많은 사람들이라 배울게 많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내 마음을 내비치면, 나를 좋지 않게 보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마음은 모두에게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면 되지라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싶다.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주지 못해도, 따뜻한 마음 한번 비추고 밥 한 끼 하며 그간의 이야기를 가볍게 혹은 무겁게 해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라는 이름으로 제법 친해지는 모습이 되어주지 않을까. ;-) 내가 너무 조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애정어린마음 #사랑일까 #두근두근 #좋아해요 #사랑하고요 #애뜻한거겠죠 #사실잘모르겠어요

지난겨울, 너를 처음 만났어  
우린 함께 춤을 추었지  
함께 춤을 출 때면, 나는 너만 보였어  
내 얼굴에는 웃음으로 가득 번졌지

나만 즐거워하는 건 아닐까 우려도 잠시  
너도 즐거워하는 것을 느꼈고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워졌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춤을 추었지  
긴 밤을 지새우며 통화했어  
너는 노래를 불러주었고 나는 책을 읽어주었어  
네가 코 골며 잠이 들 때까지...  
그 소리조차도 계속 듣고 싶어 끊기를 망설였어

차디찬 바람이 부는 이 맘 때  
우리는 사랑했었지  
차가운 바람과 함께 네가 생각나  
이 바람처럼 사라지겠지만

#차디찬 #바람 #추억

이제는 퇴근을 해도 석양을 볼 수 없는 계절이 되었다. 퇴근시간보다 해가 일찍  
져버린다. 이미 어둑해진 거리로 나서면 하루가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느  
껴진다. 막이 내리고 배우들은 퇴장해서 저마다의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 각자  
의 무대에서, 그리고 각자의 안식처에서 삶은 지속되고 있다. 오로지 동일한 배경  
만을 공유할 뿐, 그들이 속해있는 이야기의 줄기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알 수 없다. 다만 그래서 상투적인 날씨 이야기가 가끔은 효과적이다. 당신의 삶  
에도 있고, 내 삶에도 있는 확실한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날씨 #각자도생 #밤의장막



카페로 들어오는 순간, 하필 봄날이란 글자가 가슴에 닿지 뭐야. 그리곤 여태껏 네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 사랑하는 여자 친구를 앞에 두고도 말이야. 작년에 마주쳤으니, 헤어진 지 2년이나 지난 후였구나. 반가움에 손 흔들던 나와 찡그린 얼굴로 피하던 너 생각이 많이 달랐었나 봐. 헤어지던 날,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도. 난 너와 만난 6년이 한 철 봄날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미련이 남았다거나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려고 있는 건 아냐. 어차피 그 시절의 너 이제 없으니까. 물론 나 역시도. 서로의 권태로움에 헤어진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해. 네게 소홀한 건 있었지만, 나만이었을까? 헤어짐의 불씨는 이미 훨씬 전부터였는걸. 아! 참나, 나 혼자 원망하고 따져봐야 소용없는 건데, 헤어진 것에 대한 생각은 떠올리지 않을 테야. 설사 너와 대면한데도 말이야.

"오빠 뭘 그렇게 적어?"

"아, 아니야 통화 다 했어?"

"아니 아직, 엄마가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토요일 저녁 어때?"

"토요일 저녁 괜찮아, 어차피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응",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설마 이 편지를 네가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몇 글자 남기자면. 내가 잘못된 일이 많았더라도, 그래도 즐거웠던 시간만 간직해줘, 한 철 봄날 같은 그런 시간으로 말이야.

"뭘 그렇게 적어?"

"아, 아니야. 생각 좀 하느라"

"후,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 전화하느라 이야기도 못하고 벌써 이렇게 됐네. 미안"

"괜찮아, 나름 생각하기 좋은 시간이었어."

-

"오빠 나올 때 알바한테 뭐 주고 나온 거 같은데, 뭐 준거야? 설마 남자 취향이 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에이 설마, 그냥. 심심해 보이는 손님 있으면 전해달라고 했어. 아마 그냥 버리겠지만."

"뭘데? 무슨 글인데? 왜 나는 편지 안 써주는데."

"어? 아..."

#옛사랑 #추억 #봄날

## 너부리<sub>n</sub>이상미 (1)

"널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오래전 한때 끔직한 시간 속에 살았었다.

그 시간을 모두 삼켜내고 기억 속에 무더졌다 할 만큼 시간이 흐른 후에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마주친 사람처럼 넌, 그저 웃으며 말했다.

널 사랑하지 않았던건 아니야 라고.

사랑했으면 한 거고 하지 않았으면 안 한거지 저 애매한 말은 뭐가.

"네가 나 때문에 많이 변했을까 걱정했어 그때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을까 봐"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너의 눈은 나를 살피고 있었다.

내가 무언가 달라졌는지

과연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에겐 가혹했던 그시간의 여파가 어디까지 엮는지 살피는 눈.

아, 그래.

이제야 너의 말들이 이해되었다.

널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 란 말

넌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고, 너의 눈에 난 손볼 곳 많은 어설픈 사람이었구나.

이제와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너의 그 나름의 사랑이 이 어설픈 이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궁금했던 거구나.



## 너부리n이상미 (2)

웃음이 나왔다.

너에겐 애석한 일일런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살피 무엇하려고.

지금 그저 마주 앉아있을뿐.

함께 나눌 것이라곤 점점 흐려지는 일밖에 남지 않은, 지난 과거의 기억뿐인 우리  
에게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할 게 없어서

유독 술이 달아 기꺼운 밤이다.

#술값은니가내라 #술이단테입은쓰네

빈 노트가 좋다.  
마음대로 채울 수 있으니까

너의 마음도 비어있었으면 좋겠다.  
나로 채우고 싶으니까

#설레이는 #마음속 #그대

봄날이라... 올 겨울은 이전에 비해 비교적 덜 추웠었다. 날씨는 약간 쌀쌀한 봄 같았다. 친구와 4월에 벚꽃구경을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COVID19 때문에 가지 못했다. 그냥 일을 다니며 그저 그런 봄이 지나갔고 그저 그런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다. 한 해가 4분의 3이 지나가버렸다. 다시 봄을 기다리게 되었다. 올 초 계획했던 것들은 하루하루 미루다보니 벌써 9개월이나 밀렸다. 하루하루가 누적되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음 봄은 그저 그렇지 않게 맞이해보아야지...

#따뜻함 #그리움 #정적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잖아요.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늘 듣던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어 보내면 진행자가 대신 읽어주는 프로였던지라, 아침마다 항상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어떤 날은 이별한 전 남자친구가 보고 싶단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자연스럽게 만난 배우자의 이야기도 들었다. 어떻게 만나 결혼했는지 등의 이야기로 채워진 아침은 어째서인지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을 결혼질로 바라본 것만 같아서 웬지 마음이 몽글몽글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할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애청자인 버스 기사님 덕분에 나 역시도 즐겁게 듣는 중이었다.

오늘도 어김이 없었다, 40대에 만나 뒤늦게 아이를 갖고 이제는 예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재미를 알아간다는 한 부부의 이야기였는데, 남편이 그 프로그램의 애청자라서, 아내가 남편 몰래 보낸 사연이었다. 아내는 이런 평범한 이야기도 소개가 될까 싶어서 사연을 보낼지 말지 고민했다고 했다. 예쁘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들렸다. 평범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그들의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아름다움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보낸 사연을 듣고 있었고, 사연이 끝나고 노래가 흐를 무렵에 방송국으로 답변을 보냈다. 어쩌면 별일 아닌 작은 행동이지만, 그 부부는 오늘 하루가 인생에 기억될 만한 하루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함을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삶은 행복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함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잘 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주변 색과 비슷하기만 한 사람이라서,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없으니까 등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며 나의 특별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삶을 운운하곤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게 된다. 나의 존재와 가치

를 잃어버릴 때마다 주변에서 누군가 응원이라도 하듯 평범한 삶도 괜찮다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사람이 그리운데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가급적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지루해지더라도 했는지 요즘 들어 부쩍, 곳곳의 대화방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말수조차 줄이고 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썩 달갑지는 않아서 불편했다. 필요에 의해서 안 하는 말이지만, 사실 만나서 수다도 떨고 마음 편하게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싶다. 눈치 안 보고 영화도 보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연습하고, 야구장에서 신나게 소리도 지르고 싶다. 그런 답답함이 자꾸 안으로 스며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고, 이 시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어서 아쉽고 그랬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여, 꽃을 사도 달갑지 않으니 뭔가 사랑받고 싶다는 느낌만 강해진 것 같다. 혼자 바로 설수 있어야 할 텐데 난 아직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들었던 것은 아닌가 자책한다. 이 모든 삶이 모두가 겪고 있는 동일한 평범함이 되어버린 게 가장 안타깝다. 원래 우리가 누리던, 온전한 "평범한 일상"이 다시금 찾아왔으면 좋겠다. 베품에 인색함이나 부족함이 느껴지지도 않았던 그 시기가 그리다.

#평범한행복 #평범한일상 #그마저도행복할것같아









이건 가장 한국적인 선이야.

길을 가다가 위를 올려다보면 문득 보이는 형상은 나무의 푸르름이거나, 파란 하늘 위로 올라온 전선들의 향연이었다. 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엔가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를 뻗히 쳐다보고 있으면, 유독 그곳에 꽂혀 이 많은 선들은 어디로 연결될까. 이 선들이 향하는 곳들은 어디인가 했다. 프레임 안에 차곡차곡 담긴 선들의 나열이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웬지 짠했다. 전선이 유독 많고, 전봇대에 여러 가지 조형물 및 중계기들이 달려있을수록 어째서인지 오밀조밀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고, 각각의 집으로 떠나는 선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괜히 찌르르했다.

선들이 겹쳐 하늘을 칼로 잘라내듯 겹쳐진 사각프레임 안의 하늘들을 바라보는 것도 꽤나 재미있었다. 알려지지 않은 직소퍼즐은 내게만 있는 듯 했고, 누군가의 노력으로 잘 맞춰진 퍼즐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날들도 있었다. 그럴때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꼭 나를 도와주고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중심을 잘 갖추고 각 가정으로 뻗어있는 선들의 굵기가 다를때면 각자에 대한 마음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낸 것만 같았다.

유독 좋아하는 사진, 가장 많이 찍는 사진, 한국에서 찍었다면 웬지 전봇대의 일부가 사진 속에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늘을 찍는다면 어딘가 전선 한구석은 꼭 나와야 하며, 하늘이 예쁜날에는 역시 전봇대가 같이 찍히는 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요즘. 내게 이 구도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준 그가 보고 싶다. 건물과 건물이 연결하는 선들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건물과 전선이 가진 매력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벽에 가득한 매립되지 못한 도시가스 배관을 보고, 그것은 정말 특별한 아름다움이야 하고 말해주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사진을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고 싶다. 그가.

#전선 #독일사진작가 #전기줄

내가 누군가와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핸드폰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메신저 앱의 친구들을 확인할 때가 그렇다.

새로운 누군가와 선을 연결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마음 같아서는 머나먼 타지에 있는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게 힘들 것이라는 사실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내가 아직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에 좀 더 노력을 쏟는다.

점검은 늘 그렇듯 지루한 면모가 있다. 새롭게 뻗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잘 있었는지 안부를 묻는 그런 행위니까, 지루하리만치 평안한 기분을 반강제적으로 맛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아서, 혹은 알고 있는 심산이라서, 내 반응에 상대가 어떤 반작용을 해 올지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연결 #점검



거긴 어떤 곳이야?

프레임 밖의 세상은 푸르고 아름다웠고 향기로워 보였다. 가보지 못했던 곳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기대였겠지만, 내겐 늘 그 프레임 밖의 세상이 궁금했다. 프레임 안의 세상도 너무 벽차고 지치는데, 저 밖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반짝거리며 아름답기만 하지 많이 궁금했다. 아주 찰나의 틈에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삶의 숨을 고르고,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감당했다. 지쳐쓰러져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시작되는 칠팔퀴 같은 일상들이 버거웠다.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프레임 속의 생활. 저 밖은 지금 창궐한 바이러스로 인해 피가 낭자하듯 보이지 않는 혈흔들이 가득하다고 뉴스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나는 그 뉴스를 그저 듣기만 했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암울하지 않았으니까. 저 밖은 꽃도 피고, 벚꽃이 흩날렸고, 습도를 머금은 푸르름을 보이기도 했으며, 노랑고 빨간 잎이 되어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했으니 어찌 평화롭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풍경을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삶의 풍경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니, 이제는 이 바쁨과 재촉으로 가득 찬 삶을 잠시 뿌리쳐두고 떠나고 싶다. 프레임 안에 갇혀 사는 것 말고, 저 멀리 밖으로. 매일 보는 익숙한 풍경 매일 보는 영상이 아니라, 더 넓고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고 싶었다.

#프레임 #기대하면실망도크다 #내년엔놀수있겠지 #여행가고싶다

누군가가 끝내 나타나지 않을 길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미련 때문이 아니라, 그 미련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공정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완성했던 무언가를 미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만 하기 때문에  
재조립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분해할 필요가 있다.

#기다림 #그리움 #혼자만의시간 #먼곳을바라봐야만하는때

랄라와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았다. 꽃이 피는 날이면 창문에 서서 꽃구경도 하고 싶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떨어지는 빗소리도 더 듣게 해주고 싶었다. 여름이 오면 좋아하는 딸기를 실컷 사주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랄라를 옆에 두고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네가 없는 세상이지만 잘 살게. 다시 만나자"라고 했다. 이렇게라도 해야 랄라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평생 랄라를 마음에 품고 살 것이라는 사실을.

장례식장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 날. 나는 랄라의 방석을 천으로 완전히 덮어줬다. 랄라와 함께 했던 사흘 동안 나는 그 어떤 정리도 하지 못했다. 랄라의 용품을 치워버리면 이제 정말 랄라를 보내야 한다는 마음에 랄라가 좋아하던 간식들도 버리지 못했고, 랄라가 좋아하던 인형들도 치우지 못했다. 차갑게 굳어버린 랄라를 놓아줘야 하는데.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다.

랄라와 행복했던 순간들을 마음에 새겼다. 시선을 돌리면 방석 위의 랄라가 일어나 다시 내 곁에 올 것 같았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랄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토끼랑 산다 中\_이순지

#반려동물의죽음 #외면 #슬픔





내 방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는 전기가 어느 전봇대를 거쳐, 어느 전선을 타고 오는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몰라도 되는 것들에 관심을 주어야 할 때는 찾아오지 않는 게 좋다. 알고 싶은 것과 알아야만 하는 것에 신경을 쓰기도 벅차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망가져버렸을 때, 비로소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지반을 항상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물론 역시 그런 상황은 찾아오지 않는 게 좋다.

#일상 #당연하게생각했던 것 #중요하지만모르고있는사실

희망도  
감동도  
없는  
젯빛 하늘

맑은 날의 하늘은  
눈이 부서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데

그래도 너는  
마음껏 너를 볼 수 있게  
해주는구나

#흐림 #절망 #삭막 #올려다보기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37살이라면 68번쯤은 했을 질문. 20살 때부터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 치면 그렇다는 건데, 더 많이 했다면 했을 테지 그보다 적지는 않을 거다. 그냥 그런 날이 있다. 별 대수롭지 않은 질문이 웬지 그날따라 어깨를 결리게 할 때. 인생에 대한 질문이 대수롭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에 상응한 합리화 기술 덕에 힘들단 생각은 들지 않는다. 한데, 아주 간혹 어깨를 결리게 할 때가 있다. 그날도 어깨가 약간 저릿한 상태였다. 그간 바쁘던 업무에서 약간의 여유를 찾았을 때, 하필이면 요동치는 일교차가 어깨로 스민 탓이다. 보통 감정이 수렁으로 빠진 날엔 아무도 안 만나는 편인데, 이미 잡힌 일 정이라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만나게 됐다.

"나도 작년에 그랬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놈에게서 나온 소리가 나도 작년에 그랬다는 소리였다. 자기는 다 겪어보고, 다 이겨냈다는 그런 투로 말이다. 삶에 대한 고민이 정말 깊었다면 그렇게 가볍게 입 밖으로 낼 수 있었을까? 여태껏 감정에 맞서 본 적 없이 바쁘게만 살아온 친구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아니, 어쩌면 수 없이 감정에 맞서 왔지만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친구를 이해한답시고 되려 상처를 받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 네가 겪은 것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

친구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내가 마음에 상처를 줄 순 없었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서 별로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았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자주 듣던 말이 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지'. 어릴 적 과히 내성적이던 내게 자주 그런 말을 하셨다. 사회생활이 힘들 줄 아셨나 보다. 외골수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지라, 나 할 것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기도 했었으니 말이다. 생각이 바뀐 건 대학을 졸업하고부터다. 학부생 시절부터 실험실 생활을 했던지라 직장생활 후 되려 개인 시간이 많아졌다. 그때부터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찰이 더 깊어졌고, 깊이가 조금씩 생겼다.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 사회를 잘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알게 됐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내 감정이 중요한 만큼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했던 시절을 지나, 감정에 치우쳤던 어떤 시기도 있었다. 다행히 요즘은 적절한 교차점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두 유형을 논리형, 감정형이라 표현하자면, 대개 딱 봐도 어떤 성향인지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고, 완전히 한쪽 성향이라기 보단 적절히 섞여있다. 한쪽으로 심한 경우도 있긴 한데, 경험상 그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혹시나 둘 중 어떤 유형이 더 싫냐고 물어본다면 후자 쪽이다. 사회 초년기에 직장에서 겪었던 일 때문인 것 같다.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동기와 언쟁했던 사건들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혀있다. 이래도 맘에 안 들고 저래도 맘에 안 드는 내 까탈스러움이 더 문제였겠지만.

싫어할 수도 없는 친구, 그런 말 아니었다면 무엇하나 맘에 안 드는 구석도 없던 친구에게 실망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정답 없는 사회에 적응한 사람들을 그저 센스 있는 사람이라 표현하는 게 전부 일련지라는 생각이 지하철 전경을 거칠고 낮설게 보이게 했다. 삶에 대해 고민한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더 나은 사람은 또 뭔지...

#센스 #삶 #사회생활

퇴근 후 10시쯤이었다. 그날따라 역사 내엔 사람이 없었다. 도착한 지하철에도 한 두 명 정도였을까. 기억에, 그 날 탑승구로 내려오는 길이 참으로 멀었다. 내리막 계단을 가파른 언덕 오르듯 꾸역꾸역 내려왔다. 조금만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탈 수 있었지만, 한대 보내고 나서야 탑승구 앞에 겨우 섰다.

늦어도 3분 정도면 다음 열차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한데 3분, 그 날 180초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꾸자라는 마음을 먹은 건 60초 채 되지 않았을 거다. 딱히 직장 상사가 불합리했던 건 아니다. 수궁 가능한 수준이었고, 퇴근시간을 당기자면 충분히 당길 수 있는 여건이었다. 문제는 스스로였다. 과도한 애착이 결과물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간혹 나도 모르게 남 탓을 하기도 했다. "저 사람만 잘해줬어도 더 좋았을 텐데".

투명한 거울에 어둑히 비친 내 모습이 악마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게 내 본모습이었을지 모른다. 회사를 위해,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은 어쩌면 나를 포장하기 위한 노력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악마 #내면

의외로 막차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절반은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들어있다.  
별 탈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라며,  
서로의 취한 모습을 흘끗 본다.

천호에서 광나루로 가는 길목 중간쯤  
그러니까 한강 아래에서 문자를 보낸다.  
'나와'

양 끝으로 갈라지는 출구를 따라  
터덜터덜 술기운이 가라앉은 몸을 이끌면  
군자역 5번 출구였다.

어스름한 간판 불빛과  
전구색 가로등 아래로 네가 서있었다.

귀가가 늦어지는 날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던 그 길을  
묵묵하게 같이 걸어주었다.  
조잘거리며 내 할 말만 남겨두고  
그곳을 먼저 떠난 나는,  
오래도록 그 마중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했다.

남겨진 너의 마음을 모르고

#추억 #무심했던 #미안함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 하루가 일주일 중 가장 긴것 같다. 하루종일 밖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 이래 저래 사람을 만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롯이 연습하고 배우고 춤추는 시간들의 연속이다. 날마다 집에 갈때면 삼만오천보 이상의 걸음수가 그저 신기하고, 피곤하고 피로해지는 느낌들이 좋기도 하다가 싫기도 하다가 한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끔 나도 왜이리 열심히 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사랑에 빠진 기분이라서 더 그렇게 열심히 하는건가 생각한다.

사랑은 못해도 춤은 잘 추고 싶은 사람. 잘추면 사랑에 빠질까 싶었는데 잘 춘다고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고 심장이 두근거릴 일이 잦아질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나는 나로서 그렇게 온전히 서있고, 춤추는 것 이외에 나를 달리 규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과 순간들이 행복하다. 그러니 항상 오는 이 지하철 역에만 오면 그렇게 두근거리는 거겠지. 나에게 춤은 그런 거겠지.

#사랑과춤의경계 #열정을쏟고난후 #마음 #몸도지침

지하철 문이 열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아침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는데, 이들과 내가 아는 사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루에 그렇게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일까.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각자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무관심 #알아도모르는 #개별적인

일상.

난 이 단어의 소중함을 잘 안다.

한창 철었던 시절에는 나 역시 남들과 동일한, 적어도 못지않은,  
아니, 사실은 웬만한 이들보다 더 나은 일상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세상살이에 대한 몰이해와 스스로에 대한 교만은 나에게 일상이란 단어의 가치를 잃게 했다.

그 시절 나에게 이 단어는 당연히 보장된 미래,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반복을 떠올리게 했다.

나 또한 다른 이들 속에 묻혀 덧없고 평범한 매일을 보낼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그래서였던지 삶은 그토록 무지했던 나에게 일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몸소 깨달았고,

사회의 문턱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나란 사람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됐다.

무엇보다도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사람들인지 가슴 깊이 느끼게 됐다.

다시금 일상을 되찾기까지 나는 일상이란 단어의 가치를 뼈에 새기고, 내 뇌와 혀를 검손과 통찰로 닦아내야 했다.

일상의 의미를 날마다 아로새기는 것. 그게 내 평생의 숙제가 됐다.

#일상 #단조로움 #존경 #사회

"뭐?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 "한 여자애가 있었어"

...

복권방에는 담배 연기가 가득했고, 스포츠포토를 도박처럼 즐기는 아저씨들 무리가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어. ... [이, 일등! 로또 일등 당첨!] 자기도 모르게 크게 소리치고 말았지!

...

여기까지 말한 김남우 교수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긴장한 얼굴의 학생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

은행으로 간 여자애는 당첨금을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바꿨어 ... 지하철 자리에 앉아 가방을 소중히 품고서 룰루랄라 했는데, 아뿔싸! 지퍼가 터지면서 5만 원권 돈다발이 바닥으로 쏟아진 거야! ...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지

...

여기까지 말한 김남우 교수는 다시 한 번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

...

열기구가 나무에 먼저 걸려서 죽지는 않았지만, 땅바닥으로 떨어지며 기절을 하고 말았지 ... 나무로 된 작은 창고 건물을 발견했어! ... 여자애는 쓰러져 잠들었지 ... 남자 최 씨가 창고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란 거야! 웬 젊은 아가씨가 창고에 누워 잠들어 있으니까! 최 씨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서 여자애를 관찰했어. 신발도 없어 맨발이 드러나 있고, 얇은 원피스는 군데군데 찢겨 ...

...

여기까지 말한 김남우 교수는 또다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얼굴을 살폈다.

...

최 씨의 도움으로 여자애는 목숨을 구했어! 집으로 돌아온 여자애는 은혜를 갚기 위해 최씨에게 1억을 건넸고, 최씨는 그 돈으로 산채 비빔밥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

...

"엥 끝이에요?"

...

"아, 뭐예요 교수님! 무서운 이야기라면서요!"

...

"무서운 이야기 맞잖아?"

...

"너희들이 한 그 상상들은 어떻게 떠올리게 된 걸까?" "너희들이 상상했던 그 이야기들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야."

13일의 김남우, 김동식, 165~173p

#상상보다 #무서운 #현실



지금의 시간이 좋다.

딱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서 좋다.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좋다.

같은 공간 아래 함께 숨 쉬고 있어서 좋다.

서른이 넘어가니

가족들과 함께 하는 때 순간이 소중하다.

지금 이 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을 만큼

#사랑해요





"오빠, 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형, 오늘 못 갈 거 같아요."

"내가 오늘 원래 일정이 있던걸 깜빡했네, 미안."

"어머니가 갑자기 오늘 시간 좀 비우래서."

이미 꽤 모인 터라, 몇 명 빠진데도 부족함은 없다. 사실 서너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스무 명 썩이나 모이는데 즐겁지 않을 수 있으랴. 한데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았다. 혹시 서운함 때문인지 수 없이 되물었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 어찌면 그런 말들 때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들, 그런 단어들. 우리들이 더 어울리고, 더 즐거울 수 있는 기쁨이 단절되는 표현들에 기분이 침식됐으리란 것.

#침식 #기분 #사정 #서운함

수줍은 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랑의 계절이 되어 당신에게 닿기를

홀로 애뜻한 감정을 지새우다가 홀로 마음을 정리하고자 했을 때, 나에게 가장 위안이 되었던 건 한 잔의 커피와 여유로웠던 시간이었다. 사람들의 이해를 바라기도 했고, 원망섞인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꽃힌 화살을 잘라내야 했던 게 가장 먼저였다. 아무도 모르길 바라면서 아무도 모르는 양기를 바랐던 요 며칠간의 내가 안타까워서 슬퍼지기도 했고, 대신 울어주기도 했다. 내 스스로가 나와의 시간을 온전히 갖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알고 바라고 깨닫는 동안, 책에 기대었고 기뻐던 책으로 회복할 힘을 얻고, 다시금 글을 쓰고 정돈을 했다. 결국 마음이란 다 주는 사람이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나는 매번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매해 비슷한 패턴의 양상을 보내며, 매일 실망했다가 사랑했다 다시 속앓이 하기를 반복한다.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고 상대방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지 모르지만, 하지 말라는 타인의 시선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미 마음이 가버린 내 마음도 이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언젠가 밀어내고 밀어내도 다시금 찾아온다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속의 폴에 대한 시몽의 사랑처럼 애뜻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 여길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의 불장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이어질 것이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연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될놈될 이라던데, 어차피 연애를 하게 될 사람은 내가 철벽을 치든 될 하든 어쨌건 서로 눈이 맞는다는 거겠지.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관계들에 오픈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시기적절하게 찾아올 사람이 있을 거라면서 그렇게 식지 않은 빈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타인의시선 #자의일까타의일까 #될놈될



너는 내게 등을 돌리고 아무 말이 없어.

나는 너에게 구름 너머에 반드시 있을 해님을 같이 보자고 했는데  
넌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니?

난 오늘도 열심히 궁금해하는 중이야.

그동안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과연 네게 가치가 있었는지를.

판에는 정말 성심성의껏 키워 온 것들을 기꺼이 네게 나누어 준 거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너에게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

오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리 봐도 넌 나보다 여리고 약해.

사실 이건 너부터 내게 먼저 인정했던 사실이기도 해.

아마 내 느낌이 맞는다면 넌 내가 너보다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에 실망했겠지.

하지만 기억해 봐. 우리의 대화는 그 차이점이 존재했기에 시작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차이는 너와 나 사이에 놓인 벽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원(原) 축복이었  
다는 걸 넌 모르겠니?

난 오늘도 고민하고 있어.

혹시 네가 좌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여전히 여린 너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옳을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그랬듯이 너도 혼자서 그걸 견디도록 놔 두는 게 옳을까.

#망설임 #기다림 #불협화음 #흐림 #희망 #기원



행복해할 당신을 상상하며

좋아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한다는건 무척이나 설레는 일이야. 그사람이 받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거든. 요즘 그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으니까 등등 이유는 정말 다양한거지. 한번 선물하고 나서 그사람의 얼굴을 보면, 돈도 안아깝고, 나도 행복해지거든. 비싸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소소하게 그렇게 하는 선물이 꽤나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해. 오늘은 그랬어. 예쁜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관계가 되었으면 하나까.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래.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그저 꽃에 담았어. 작지만 큰 마음이 부디 닿길 바라. :)

#선물 #소소하게 #마음표현하기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지만,

감당할 수 있을 사람일까 아닐까를 재기보다, 친해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좋았다. 전보다 조금 더 웃기 시작했다.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를 따지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했다. 끊길 듯 끊기지 않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 이런 감정이었지. 하고 깨달아버렸다. 단 하루의 신기하고 행복했던 경험. 세포가 살아올라 오는 기쁨 따위였다랄까. 그 시간은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뿐,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다가와 준 그 사람에게 참 고마웠다. 아무런 감정 없이 함께해준 걸 수도 있겠다. 가만히 쳐다보고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게 신기하고, 감은 눈도 커다란 키도 신기했다. 귀도 보고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오랫동안 쳐다봤다. 걱정하는 나와 달리, 다 괜찮다 말해주는 그 안정감이 좋았다. 나를 이해해주는 마음.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비쳤을까. 허우대만 멀쩡해 보이고 (어쩌면 안 멀쩡해 보이기도 하지만), 웃는 게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돈다. 새벽녘의 어스름이 사라지려던 그 밤,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도란도란 나누던 말들도, 쌀쌀한 가을밤 공기가 닿아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도 고마웠다. 역시 그랬다. 결국 아무 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지만.

#좋은사람 #신기한경험 #오랜만





1980년대의 건물이라든가 간간이 보이는 한옥들로 이루어진 종로는 서울의 중심부지만 강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종로의 골목을 걷다 보면 어느 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기분이 든다. 그중 하나는 낙원상가 뒤, 아구찜 거리다. 궁벽진 이 골목을 어찌 알고들 찾아오는지 아구찜 전문 식당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찬바람이 초록빛을 앗아가고 앙상하게 남겨진 가지가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린다. 추위와 함께 어쩐지 허기가 지는 계절이다. 아귀가 가장 살이 오르는 때도 바로 이 겨울이다. 매콤하고 녹진한 양념 아래로 아귀의 뽀얀 살과 미더덕, 새우 그리고 이 모든 바다 내음을 한껏 품은 콩나물 더미. 몸통의 절반인 대가리와 큰 주둥이를 가진 아귀는 그 생김새와 판이한 맛을 낸다. 생물의 기분 나쁜 물컹거림은 요리를 거쳐 입안의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오른다. 소담스러운 아귀살 한 움큼을 넘기고 나서 소주 한 잔을 털어 넣는다. 이 한 잔이 후끈했던 속을 시원하게 가져준다. 겨울 한 자락을 너끈하게 보낼 수 있는 맛이다.

#궁벽진골목 #뜨듯한 #너끈한

새삼 느끼지만 코로나가 참 많은 이들의 삶을 흔드는 것 같다.

며칠 전 동네를 상점가를 걷다 보니 낯선 가게가 많이 들어온 걸 발견했다.

지난 번까지만 해도 다른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새 또 소리 소문없이 자리를 뺐  
건지.

집 앞에만 해도 임시 휴업이니 임대 문의를 써 붙인 가게가 많아 내심 씁쓸했는  
데

그나마 이곳처럼 다른 가게로 채워질 수나 있다면 다행인 건가?

오늘도 길에서 새로 가게를 차리는 모습을 봤다.

새로운 가게의 사장으로 추정되는 분이 인테리어를 감독하는 뒷모습이 보였다.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비판에 찌든 내 뇌는 '과연 이 시국에 가게를 내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부터 떠오른 게 사실이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니 이 빌어먹을 역병이 대다수에게 절망을 안겨 줬지만  
일부에게는 도전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도 해 본다.

내가 빌어봐야 부질없겠지만 그래도

부디 내 의구심이 틀리고 그들의 희망이 옳기를...

아울러 자리를 뜨신 분들도 어딘가에서 다시 자리잡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상점가 #코로나 #폐업 #새출발 #희망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랄까. 너는 내게 그런 느낌이었어.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많이 긴장했어. 잘 보이고 싶었는데, 나는 고작 2년도 채 못 춘 사람이었거든. 추는 건 너무 좋아하지만, 더 이상 늘지 않는 실력에 화가 나고 속상해하고 있던 찰나였지. 하루 종일 누구랑도 제대로 못 추고 내 춤실력을 탓할 즈음에, 아마 너랑 춤을 댄 거야.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빠른 곡에 댄는데 결국 난 제대로 못 댄 거야.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너는 이미 갖춰진 사람인데, 내가 괜히 민폐가 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많았지. 그 이후에 내게 홀딩 오지 않는 걸 보고, 아 나는 안되는구나 하고 속상하면서 집에 갔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썩 좋은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춤도 추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날이었기도 해. 집에 가는 길에 조금 울기도 했던 것 같아.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마지막 해결책이라 생각했던 곳에 들어갔는데, 네가 있더라고. 겁먹었어. 맞아. 내 춤은 무료했고, 지쳤으니까. 어떻게 취도 힘이 드니까, 여기서도 안된다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

막상 여기서 한 달 정도 있다보니, 네가 편한 거야. 그래도 안면식이 있다고 나 나름대로 너한테 의지를 했던 걸까. 신기하지. 그래도 여전히 춤추기엔 내가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네가 내 눈에 자꾸 아른 걸렸어. 사실 처음 보았을 땐 그 저 잘 안 맞는 리더일 뿐이라고 여겼었었지. 그냥 많은 사람들 중 재미없는 한 사람이었던 거 인정해. 그래서 별 관심도 없었어. 이 무리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는 것에 신물이 나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마음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샌가 당신을 의식하고 있더라고. 당신과 잘 맞는 팔뿔이 되고 싶었나 봐. 다시는 뭘 열정적으로 하지 않겠다 생각했던 그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었던 거지.

여기 와서 시작했던 연애는, 나보다 술을 더 좋았던 사람과 했어.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지. 그런 사람과 사귀기로 했던 나는 술 대신 춤을 선택했었어. 그 사람이 술을 먹는 동안 춤을 추고 보란 듯이 양값음을 해준다는 심보였는데, 어찌면 나는 술보다 춤이 더 좋았나 봐. 고주망태가 되고 사지 육신이 만신창이가 될 거라면 차라리 내 몸에 무언가 습득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혼자 스스로 해내는 그 길이 맞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해도 늘지 않았지. 나도 알아. 언젠가 빛을 발하겠거니 하고 했던 일이니까. 단지 더 재미있어 보이는 척도 해보고, 그 사람보다 훨씬 이 춤이 더 재미있다고 일부러 그런척도 했어. 춤을 향한 나의 관심을 어디 한번 돌려봐라하고 내심 바랬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해. 결국 그 사람은 그러지 못했고, 나는 더 이상 내 연애사가 왈가왈부 되는 이곳에서는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어.

그 이후엔 누가 좋아져도 마음은 비치지 않는 것, 들키지 않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 행여 내 마음이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부담 이상의 것이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곁에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여겼지. 사랑은 바라지도 말 것. 저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뿐, 사람의 사랑은 믿지 말아야 했어. 나를 퐁퐁 싸맬어. 춤을 오래 추려면 내가 다치면 안되니까. 왈가왈부 될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사람 많은 곳은 피했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게 힘들더라고. 알게 모르게 말하지 못할 상처들이 이미 많이 쌓여있었나 봐. 나는 나를 지키는 일이었을 뿐인데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연애하는 법을 잊어버렸나, 설레고 좋아하는 법을 잊어버렸나 싶은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좋아하는 마음 정도는 얼마든지 표현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변해버린 걸까 싶었어. 춤을 추는 것 모두 사람을 좋아하니까 하는 행위인데,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내가 힘들더라. 그래서 용기를 냈던 날이야. 약간의 성실함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는

날이었지. 그날 너도 그랬나 봐. 자주 불참한다던 네가 같이 가겠다고 하니 사람들 반응이 의외여서 난 놀랐었거든. 덕분에 너를 잘 볼 수 있었어. 너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네가 치는 그 기타 소리,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 춤추면서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없이 춤만 댔던 이야기, 좋아하는 댄서의 이야기 등등 듣는 동안 너만 보이더라. 집에 가서 잠을 자도 눈을 떠도 일을 해도 연습을 해도 온통 너였어. 웃는 얼굴. 내 편이 되어주던 다정함. 세상에 나.. 이 균열에 비집고 들어오지 말아 달라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넌 모를 거야.

기회가 닿아, 한 주 더 같이 보낸 그날은 결국 균열에 대한 대가를 얻은 날이야. 너는 완벽히 예뻐고, 더 가까웠어. 내가 너를 저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듯 그저 다 같이 즐기는 자리였지만, 몇 주를 그렇게 내 삶에 끼어들어서는 그날은 아예 대놓고 내 눈에 너만 보이더라. 바보같이 그랬어. 네가 좋아졌구나. 술기운이 아니구나. 종교가 무슨 소용이며, 학력이 무슨 소용이고, 네가 머리가 큰 게 더 멋있어 보이고, 세상 모든 게 다 괜찮고 이해해 주겠다는 마음이었지. 설령 외계인이라 할지라도 좋아하겠구나 싶었어. 당신의 눈엔 어쩌면 내가 바보 같아 보이겠구나. 잘 보이고 싶었는데, 잘 보이지 못하겠구나. 속상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만감이 교차해버렸지.

맞아. 나는 지금, 네가 모르는 사랑을 하고 있어. 이렇게라도 뺏어내면 포기가 될까 싶어서 하는 소리야. 말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때도 있잖아. 차라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 우리가 마주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겠지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꼭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어떻게든 만나게 되겠지만, 어떻게든 못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두려운 거야. 정말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인연이면 어쩌나 걱정하고 조바심이 나는 거지. 내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도 안 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네가 무척 좋은데,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아직 우리 친해지기엔 서로 너무 낯가리니까.

## 은비n장은비 (4)

2억 광년을 건너온 그 사랑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했을까. 인내하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했을까. 한아가 그 고백을 거절했다면, 살아 온 환경을 버리고 날아온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해. <지구에서 한아뿐>에 나오는 경민이랑 한아처럼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잘 안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하나 봐.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나는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다는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예쁘고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네가 가진 다른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말할 수가 없네. 난 이미 너로 인해 반짝거리기 시작했는데 말이야. 언젠가 늦지 않은 때에, 이 마음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

#사랑이야기 #짝사랑 #사진에도온통너야 #왜잘생겨서는 #왜잘웃어줘서 #왜그리  
친절해서 #왜내편이되줘서 #소설이랑에세이좋아한다고는왜그래서 #책읽는사람이  
란거잖아 #기타는왜잘쳐서





밤공기가 참 좋은 요즘.

차갑지만 제법 선선해진 밤공기에 두근거리고 설레고 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좋은 날들인 것 같으면서도 시작하려니 막상 두려워지는 시간. 다가오는 미래를 서서히 계획하고 시간을 들이는 일에 더 집중하는 날들. 내년엔 무엇을 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고야 마는 날이었는데, 요새는 부쩍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내일이 있을까. 계획대로 내년은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미래를 그려보지만 이것이 정말 다가올 미래인가 싶어진다. 그러다 결국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이 어둡고 차가움 속에 고이 갇혀버렸다.

#내년계획 #내일이있을까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도, 주기도 한다. 모든걸 무난하게 중화하려는 습관이, 그 당연한 감정에 불필요하게 많은 이유를 주렁주렁 달아줬던 것 같다. 상대방의 프레임에 간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싫다고 단정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당장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정교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53p

#인간관계 #뒷담화 #착한아이



기적이란 것은  
타인에게 그리고 멀리서  
보았을 때 쉽게 알아챈다.

어루만질 수 있을 정도로  
내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저  
타인의 기적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며

내 곁의 기적을  
마뜩잖아 할 뿐이었다.

#타인의기적 #질투의시선 #부러움

“어머, 와이프, 저것 좀 보요. 베르사체 신상 아니요?”

“아니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냥 좀 가세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산이 없어 이렇게 한 우산을 쓰고 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방정맞은 그 입을 또 열어놓았네요. 영원히 닫아버리고 싶다, 정말.”

“아니, 잠깐. 방금 지나간 남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보긴 또 뭘 봤다 그래요.”

“아니, 글썄, 와이프, 내가 입만 열면 허튼소리를 하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진짜요.”

“뭐가 또 진짜고 가짜예요?”

“지나가버렸으니 확인을 시켜줄 수가 없구려. 우리, 저쪽으로 걸읍시다. 저 사람하고 한 번 더 마주치게.”

“내가 다시는 당신이랑 외출을 하나 봐요.”

#유쾌한오후 #한가로운산책

## 알미트라n박준형 (1)

검정, 흑, 검은색.

이 색은 나와 인연이 깊다.

검정은 오행으로 수(水)를 의미하며 겨울을 상징하는 색이다.

나는 사주에 수가 없어서 검은색으로 소지품을 맞추란 말을 종종 듣는다.

우스운 건 저 말을 듣기 전부터 내 주변은 검정 일색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다.

우선 내가 가진 옷이 대부분 검은색 계통이다.

지갑도 검은색, 탁상시계도 검은색, 이어폰도 검은색,

휴대폰도 검은색. - 내 휴대폰은 아무리 바뀌도 색은 언제나 같다.-

염색 한번 안 한 이 머리카락도 몇십 년째 검은색.

심지어 내 골동품 중고차도 검은색.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통념적으로 검정은 죽음과 소멸의 부정적 느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부, 권위와 세련미를 나타낸다고도 한다.

그런데 나는 부도 없거니와 권위도 없으며

하다못해 내가 입은 검은색은 우중충한 색처럼 바래서 옷맵시조차 살지 않는데

왜 난 검은색에 집착하는 건가.

첫 직장은 제조업체를 다녔는데 상사 한 분이 술좌석에서

나랑 죽이 펍 잘 맞았던 동료 선배들과 나를 보더니

"너희는 삼원색(RGB)이야. 너가 R, 너는 G, 그리고 막내인 너- 그게 나였다.-는 B다."

다음으로 다녔던 직장에선 각자의 명함에 다른 색깔을 입혀 줬다.

난 처음 보는 디자이너 분께 대뜸 내 이미지랑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 명함을  
입혀달라는 짓궂은 주문을 해 봤다.

혹시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리고 나는 검은색 명함 200장을 얻었다.

사실 난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다.

다만 그냥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누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색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할 생각이다.

"검은색이요! 그래도 다음에 차를 살 땐 꼭 빨간차를 사고 싶네요!"

#검정 #검은색 #상징 #긍정





호미질을 하느라 날이 저무는 지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인나리께서는 좋아하시겠지만, 난 전혀 그렇지 않다.

-다들 어딜 가버린 거지?

시간 되면 어렵히 함께 돌아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모두들 개인주의다. 물론 나도 만만치 않다. 저번에 여기 어딘가에 군고구마를 물어놓았었는데…….

그렇게 멍하니 걷던 나는 하늘에서 군고구마보다 조금 더 큰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노동에서도 해방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 몇몇이 이렇게 일을 마칠 때 쯤, 석양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석양보다도 눈부신 물체를 보고 난 뒤 미쳐버렸다고들 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무의식중에 난 홀로 남아 있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니 한창 호미질을 할 때 제시카가 옆에서 내내 고함을 쳤던 것 같기도 하다. 정 많고 착한 제시카……. 그녀는 좋은 엄마가 될 것이다. 그녀의 결혼식에 미친 하객은 필요하지 않을 테지.

고구마보다 컸던 물체는 점점 커졌다. 내 쪽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뜻이겠지. 난 그게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리고 물체 안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도 봤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도, 이게 미쳐가는 과정이라면 납득할 수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도, 웬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인 듯한 것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난 그제야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네, 주인나리.

#무언가를발견한사람 #노동이끝날 무렵 #오늘은뭔가가다를까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 온갖 악취가 콧속을 찔렀지만 이곳에서 냄새 따위를 신경 쓰는 건 나뿐인 듯했다. 박사는 당장이라도 나를 실험대로 끌고 갈 듯한 기세였지만, 나또한 만만하게 보일 수만은 없어서 킁킁 짚어댔다. 그러자 박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자네, 인간이길 포기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

나는 그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난 인간이 아니라 개입니다.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자 박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난 그제서야 박사가 왜 폭 발물이라고 불리는 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언제든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을 극한까지 터뜨릴 준비가 되어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했다.

“그렇게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 체 하고 있으면 좀 편하던가?”

그러면서 그는 내가 무언가에 굴복한 패배자라도 된다는 듯 경멸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는데, 묘하게도 뒤에 앉아 있던 검은 고양이도 같은 표정을 지었다. 난 그들에게 뭔가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악취가 계속해서 코를 찔렀고, 나는 그제 온갖 생물들의 피 냄새가 뒤범벅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이곳에서 얼마만큼의 생명체를 학살해왔는지 짐작이 갔다.

“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내 말투에는 두려움이 배어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내 감정을 알아챈 박사가 즐거움을 느꼈을지, 아니면 가증스러움을 느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피가 얼룩진 손으로 나를 쓰다듬었다. 포악한 강자의 동정을 받는다는 건 이런 느낌일

까. 이런 식으로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 피 냄새가 이곳 악취에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봐야 하는 것일까?

“가치를 증명해 봐.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지. 하지만 인간성까지 되돌려 줄 순 없어. 그건 다른 문제니까.”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박사는 표정으로, 내가 그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넌지시 말하는 듯했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걸 나한테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게. 개가 되기로 했으면 얌전히 개처럼 굴어. 아니면 아직 미련이 남았나?”

그 말을 들은 나는 묘하게도 차분해졌다. 애초에 내게는 내가 인간이었다는 자각 자체가 없었다. 아니, 그게 무슨 헛소리인가? 내가 인간이었다니? 나는 박사와 그 뒤를 따르는 고양이를 멍멍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그들을 따라 나서기 위해 조금씩 발을 움직였다. 되도록 피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한 발자국씩. 그러자 멀리서 고양이와 박사의 대화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사님, 뇌 이식이 실패했던 걸까요?”

“실패? 그랬다면 저 치는 이미 3년 전에 죽었겠지. 제 발로 다시 이곳을 찾을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몽환적인 #영망진창 #경멸 #생존



명치 아래 뚫린 행한 것이

온갖 것을 집어삼킨다

슬퍼할 기회마저 먹어댄다

무엇을 넣어도 허기질 뿐

배설물조차 남기지 않는다

공허하다

#공허함 #블랙홀



오늘 하루치의 지성과 감성을 박박 긁어 모두 써버린 지친 밤이었다. 속알맹이 다 빠진 바나나 껍질같이 축 늘어져 이불을 덮었다.

딩딩 울리는 핸드폰에 눈을 뜰까말까 망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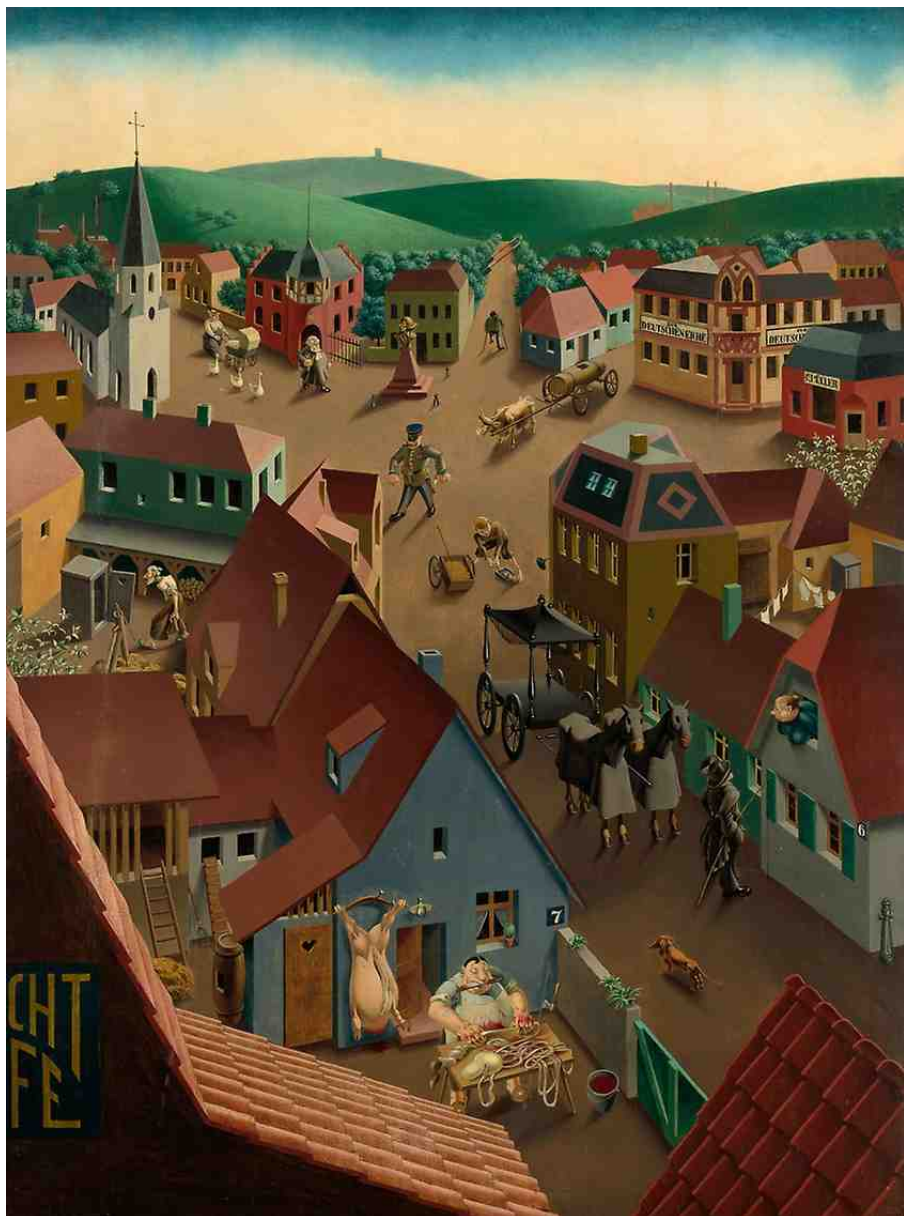
액정으로 보이는 그 이름. 냉동실에서 까만 봉다리가 발 등위로 떨어질 때처럼 짹 짹 짜게. 일어나 멀쩡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마치 피곤하지 않았던 것처럼.

집 근처라며, 얼굴 보고싶다는 말에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나가겠다고한다. 예뻐 보이고 싶지만 꾸민 티는 내고싶지 않은 늦은 시간. 서둘러 비비크림을 펴바르고 아이브로우를 열게 그려본다. 툇툇로 입술을 물들이자 화장한 티가 난다. 물티슈로 박박 지워 발개진 입술에 다시 립밤을 영성하게 문지른다. 제법 내 입술색 같아 보였다. 말리다 만 헝클어진 머릿도 틀어올려 가닥가닥 잡아댕겨 동글게 움켜잡았다. 신경쓰지 않은 것처럼.

마침 집 앞이라는 전화에 느긋하게 걸어갔다. 전혀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감싸고 유독 까맣던 그의 차 창문에 비친 나를 봤다

염병...잠옷을 입고 나왔다.

#한밤중치장 #흑역사 #허술한





들여다 볼수록 의미심장한 그림이다. 두 남녀가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다. 두 사람 다 깡말라서는 손가락에 뼈가 도드라진다. 언뜻 봤을 때는 여자의 여유넘치는 미소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행복한 부부인가 싶었다. 그런데 남자는 웃고있지 않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다른 사람의 핀잔에 여자를 감싸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두 개의 물컵이 두 사람의 앞에 있지 않고 오히려 맞은편 쪽으로 아무렇게나 놓여있다. 반듯하게 자른 빵은 왜 접시 밖에 놓여있는걸까. 여자는 그림 밖의 사람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다. 이 수수께끼를 난 못 풀겠다.

#아리송 #왜 #다정함 #부부금슬





“이거 보십쇼 피가 나오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 악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한 장 드리도록 하지요.”

인제 와서 죄책감은 없다. 어차피 면책권도 쌓일 만큼 쌓였다. 아마 몇 명 더 죽어도 충분할 테다.

“집행관님. 아랫동네에도 악마가 둘이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일 집행할까요? 시간 끌면 도망갈 게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당장 가도록 하지요.”

악마 같은 건 없다. 그저 내키는 대로 골라 죽이기만 하면 될 뿐. 수도원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한 게 악마 사냥을 시작했을 때부터였으니, 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다. 하지만 문제는 없다. 그들에겐 규칙이나 법칙보다 권력을 지키는 게 소중하니까.

#권력

“이보게, 김 씨. 그러고보니 자네 이번 달 관리비가 밀렸던데?”

“뭐요? 밀리면 밀린 거지, 밀렸다면데는 뭐요. 관리인은 당신이잖소.”

“아니, 이게 그러니까 간접화법이라는 건데, 상대방이 방금 그렇게 사람 목을 땡겨, 하고 잘랐는데 그럼 관리비 밀렸으니까 빨리 입금하라고 재촉해도, 되는 걸까 해서.”

김이라고 불린 남자는 그 말에 관리인을 노려보았다.

“난 속전속결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절단면을 보세요. 수도에서 나만큼 잘 자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니, 알지. 그래서 사형수들이 자네만 찾잖나. 고통 없이 한 번에 보내줄 걸 아니까.”

“알았소. 내 관리비는 바로 보내드리리다.”

“그래. 그럼 내 그렇게 알고…”

“어이, 김 씨. 이 자, 아직 살아있는데?”

“뭐요?”

김은 찰랑거리는 금발 사내의 말에 격노해 사형수의 머리를 향해 다가갔다. 정말 머리는 아직 살아있는지 이쪽 저쪽을 노려보았다. 관리인은 어쩔 줄 모르고 김의 뒤통수를 계속 쳐다보기만 했다.

“내 말 잘 전달 된 거지? 그렇지? 우리 집 평화는 자네 한테 달렸어?”

“이럴 리 없어. 무슨 닭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목이 잘린 채 오래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죽어야 할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칼질 한 번만 더 하지?”

금발의 말에 김은 오만상을 찌푸렸다.



“그건 내 미학에 어긋나는 일ियो.”

“아니, 김 씨, 이보게 자네. 지금 미학 같은 걸 따질 땐가?”

“왜, 그럼 당신은. 여자도 안 만나고 맨날 보는 건 사형수들밖에 없으면서 미용실 가면 꼭 실장급 불러서 온갖 시술은 다 받잖소.”

“왜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나. 그냥 칼질 한 번 더 하라는 건데. 아직 안 죽었대도?”

“잠깐만. 사형수가 무슨 말을 하려나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목이 잘린 채 입을 뻐끔거리는 사형수에게 이목을 집중했다.

“왜 내가 아직 당신들 얼굴을 보고 있는 거지?”

“당신이 살아버렸으니까.”

“누가 살고 싶어 산 줄 아시오? 아니, 왜 난 목이 잘려도 죽질 않는 거야. 참 되는 일이 없네.”

“그러게. 되는 일이 없네.”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못한 관리인이 중얼거렸다.

#잔인함이일상이되어버린사람들 #끔찍함속에서의당연한일상 #삶 #죽을때까지는죽은게아니다

테스 형 그리고 태일이 형.

테스 형! 난 형한테 세상이 왜 이런지 안 물어볼래.

소용없잖아? 형도 영문도 모른 채 사약 먹었는데 뭘.

태일이 형! 형 50주긴데 난 이번에도 참석 안 했어. 왜냐면 형 덕분에 많이 바뀐 건 사실이지만 아직 멀었거든.

힘든 사람들 여전히 많더라고. 결과도 못 내고 중간보고만 하기는 부끄러워서 그래. 언젠가는 꼭 참석할게.

슬프게 가신 형님들 안 찾고, 사람들이 형님들 기억에서 잊을 정도로 변화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진짜 바라는 거 맞지?

미안한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형들 앞에 떳떳하게 서려면 한참 걸릴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직 사회에 기여한 게 너무 없거든. 변명을 좀 하자면 그래도 날마다 꾸역꾸역 힘겹게 한 걸음씩 내딛는 중이야.

애써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않도록 간신히 노력하고 있어. 나도 뭐라도 하고 싶은데 참 뜻대로 안 돼서 괴로워.

잔인한 말인데 어쩌면 아직도 누군가의 희생이 더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어.  
사회를 제대로 바꾸기엔 한 사람의 목숨값으론 너무 적게 매겨지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건 내가 점차 이 구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내가 형들처럼 희생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긴 진짜 미안하고 면목 없는데  
거기서 날 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제발.

#선지자 #희생 #의미 #죽음 #갈망 #부끄러움



분노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 건 내 잘못이다. 스스로에 대한 질타와 원망이었지만, 정도가 과했다고는 볼 수 없다. 승부를 망친 것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다. 결정적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게 문제라는 거다.

왜 뒷말들이 오고 갔을까. 나를 문제 삼았던 사람이 팀에 대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이유였을까? 모두가 정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유일까? 그렇대도 거기서 멈춰야 했다. 나에게 대한 질타는 거기서 멈춰야 했다. 스스로에 대한 원망의 화살이 그들로 향하기 전에 멈춰야 했다. 나는 이제 멈출 수 없다.

#분노

초나라 군사들은 몸에 착 붙어서 팔다리의 힘으로 제어하기 쉬운 무기를 으뜸으로 여겼다. 칼을 한번 휘둘러서 적을 베지 못하면 내가 죽을 차례다. 칼이 적 앞에서 헛돌았을 때 나의 전 방위는 적의 공세 앞에 노출된다. 이때 수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적의 창이 내 몸에 꽂힌다. 나의 공세 안에 나의 죽음이 예비되어 있고 적의 수세 안에 나의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 적 또한 이와 같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생사는 명멸한다. 휘두름은 돌이킬 수 없고 물러줄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다. 모든 휘두름은 닥쳐오는 휘두름 앞에서 덧없다. 수와 공은 다르지 않고 공과 수는 서로를 포함하면서 어긋난다. 모든 공과 모든 수는 죽음과 삶 사이를 가른다. 그러므로 공에서 수로, 수에서 공으로 실 새 없이 넘나드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달 너머로 달리는 말 申\_김훈

#돌이킬 수 없는 #전장 #살벌한







캐비어를 잔뜩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 이러니 옷을 오버핏으로 입을 수밖에 없지. 아이고, 카드가 어딴더라? 아무튼 간에 카드를 발명한 친구는 아주 칭찬해. 안 그랬으면 지갑도 오버핏으로 들고 다녀야 했을 거잖아? 껄껄.

#만족스러워하는남자 #풍만함

"그 기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슬프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무섭기도 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복잡했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니까 또 기분이 나아졌어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흰 종이에 네 글자를 적었다. 宇宙洪荒

"이 문장 기억나지?"

물론이었다. 천자문의 시작인 '천지현황'의 다음 사자성어 '우주홍황'이다. 아빠가 갑자기 왜 우주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

"중국인들은 이 세계를 커다란 집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집이 너무 거대하고 웅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나는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20세기 후반부터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곧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지. 두려움이나 기쁨 같은 특정한 감정을 관장하는 어떤 부위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찾아내면 감정의 비밀도 쉽게 밝혀질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러나 알면 알수록 그게 간단치 않다는 게 밝혀졌을 뿐이야. 유전자 지도만 알면 인간을 알 수 있다고 믿었던 만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지."

아무리 간단한 감정이라도 그걸 느낄 때는 뇌와 몸의 모든 부분이 함께 작용해야 돼.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초조해지고 화가 나지? 소화기관들이 뇌와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이거든. 인간의 뇌는 마치 우주와 같아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게 많아지고 있어. 철이 네 뇌는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우주라고 보면 될 거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연해. 너는 네 마음과 감정을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했어.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단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다보면 더 진실하고 깊어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작별인사 中\_김영하

#복잡한 #우주같은감정 #안심시키는데



너부리n이상미

가만 서있던 날 한숨에 뒤엎어버렸어  
머리끝부터 발가락끝까지 흠뻑 적시고 한순간에 내 숨을 앗아가 버렸어  
온몸이 휩쓸려버려서 그저 어지러운채 너만 바로 보였어

그래.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쳐온것 처럼

#첫인상 #찬물을착 #첫인상이끝인상이라곤안했다

동경이란

동경이란, 출렁이는 물결 속에 살며  
시간 속에 고향을 갖지 않는 것.  
소망이라는 것은 나날의 시간이  
영원과 속삭이는 나직한 대화.

산다는 것은, 시간 중에서 가장 고독한 시간이  
하나의 어제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시간과는 다른 미소로  
영원한 것을 말없이 마주할 때까지.

릴케 시집 中\_마리아 릴케

#동경 #고독한 #영원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여라  
너를 가장 잘 아는 건 너 하나뿐이다.  
네가 가장 믿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여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너의 온몸은 말을 하고 있다.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여라  
그 선택으로 당장은 힘들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네가 원하였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평소에 연습하여라. 너 자신의 말을 귀 기울이는  
행하여라. 너의 마음이 시키는 것을  
그것이 쌓이면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최고의 네 편이 너의 곁에 머물게 된다.

#마음이 #시키는일 #소중한 #나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무얼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난 그저 가만히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내 방이 아니다. 기억속의 방, 언젠가 한 번 다녀간 적이 있었던 곳.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튼 그곳에서도 난 나른했다. 욕망마저 형태가 열어지고 있는 바람에 나태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몸이 지쳐버린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 테라스를 향해 걸어 나갔던 그녀가 기억난다. 내게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옆얼굴로 말을 했던 그녀의 마지막 말들은 머릿속에 정착되지 못했다. 그것들은 그 방 안에서, 내가 자신들을 흡입해주기를 바라며 허공에 떠다니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생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갈 일은 없겠지.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곧 나는 그 방 안에서 누구를 만났었는지를 재차 잊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나를 무의식중에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구태여 그 장막을 벗겨낼 정도로 난 의욕적이지 못하다. 어찌면 이 나른함은 체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체념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다 난 낮잠에 빠져들었다.

#나태 #관조 #방안에누워서신세한탄하기

모든 일은 그가 상상한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자신을 경멸하지는 않았다. 아마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떠나버릴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성배를 쫓는데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데이지가 특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멋진 여자가 얼마나 특별한지는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돈 많은 집 속으로, 운택하고 부족함 없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 사라져버리고 개츠비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서로 맺어진 것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단지 그것뿐이었다.

위대한 개츠비 中\_F.스콧 피츠제럴드

#열망하는 #정작알지못한 #허망한



중년쯤 돼 보이는 수염 난 사람이 손가락 끝에서 피아노를 뽑아냈다. 그 앞에서 굴렁쇠를 든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쳐다본다. 저 멀리 흰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는 넓은 별판을 한없이 달린다.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은 실루엣으로 여자임을 짐작할 뿐, 얼굴이 꽃으로 뒤덮여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바로 앞에 신문을 보는 사람은 뒷사람과 묘하게 포개져 합쳐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 멀리 지평선쯤 하늘과 맞닿은 부분에는 바다가 있는 건지 헷갈린다. 흰 드레스 입은 여자가 저쪽으로 뛰는 이유일 것 같다. 행한 대지에 눈 앞에 보이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수염 난 남자가 뽑아내는 중인 피아노, 그가 밟고 있는 돌, 옆으로 누워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보고 있는 신문 정도가 눈에 띄는 물건이다.

“아, 목말라”

물이 어디 있지? 어디서 물을 마셔야 하지? 근데, 내가 물이란 걸 마셔본 적이 있나. 이럴 때 물이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누구지?

#천지창조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짐을 가지고 있다.  
모양, 무게, 색상 또한 제각기 다르다.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다.  
그 또한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떼어낼 수 없는 존재라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바꾸면 어떨까?  
함께 살아가는 나의 짐을

#삶 #태도

갈증이 느껴지지만 구태여 물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온갖 것들이 보이거든요. 떠나보냈던 여인, 어린 시절 철부지 같았던 내 모습, 그리고 내가 되고자 바랐던 나의 모습까지도.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 저 멀리서 누군가 나를 향해 뛰어옵니다. 아니, 나를 지나쳐가기 위해 그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매번 안간힘을 쓰지만, 모래바람 때문인지 자세히 보질 못합니다. 누구일까. 누군데 저렇게 긴박하게 뛰어 오는 것일까. 문득 그 사람이 확연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는 충동이 듭니다. 하지만 곧 세계가 조각 조각으로 나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녁마에 휘감긴 유골로 발견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해옵니다. 어쩔 수 없이 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목을 축이며 생각합니다. 다음번 이곳에 되돌아왔을 때야말로 당신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이죠.

#회상 #삶 #미련 #아득한구원자







화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억울하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분노에 휘둘렸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여기서 멈추는 게 나를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견디지 못하고 표현한다면 사회화되지 못한 어른으로 보인다는 생각도 있었다. 분노에 부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분노가 치밀면 입을 앙 다물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앙 다문 입술 안으로 삼킨 분노가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화 내봐야 어차피 바뀌지 않아.' 되뇌던 말은 점차 삶을 무의미하게 했으며,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표류하게 되었다. 이런 무기력의 늪에서 겨우 나올 수 있었던 건 이 조연 덕분이었다.

"분노라는 감정 하나만 선택해 누를 수는 없어요. 지금 당신은, 감정 전체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의 의욕까지도.."

#부정적인감정은없다 #분노 #무기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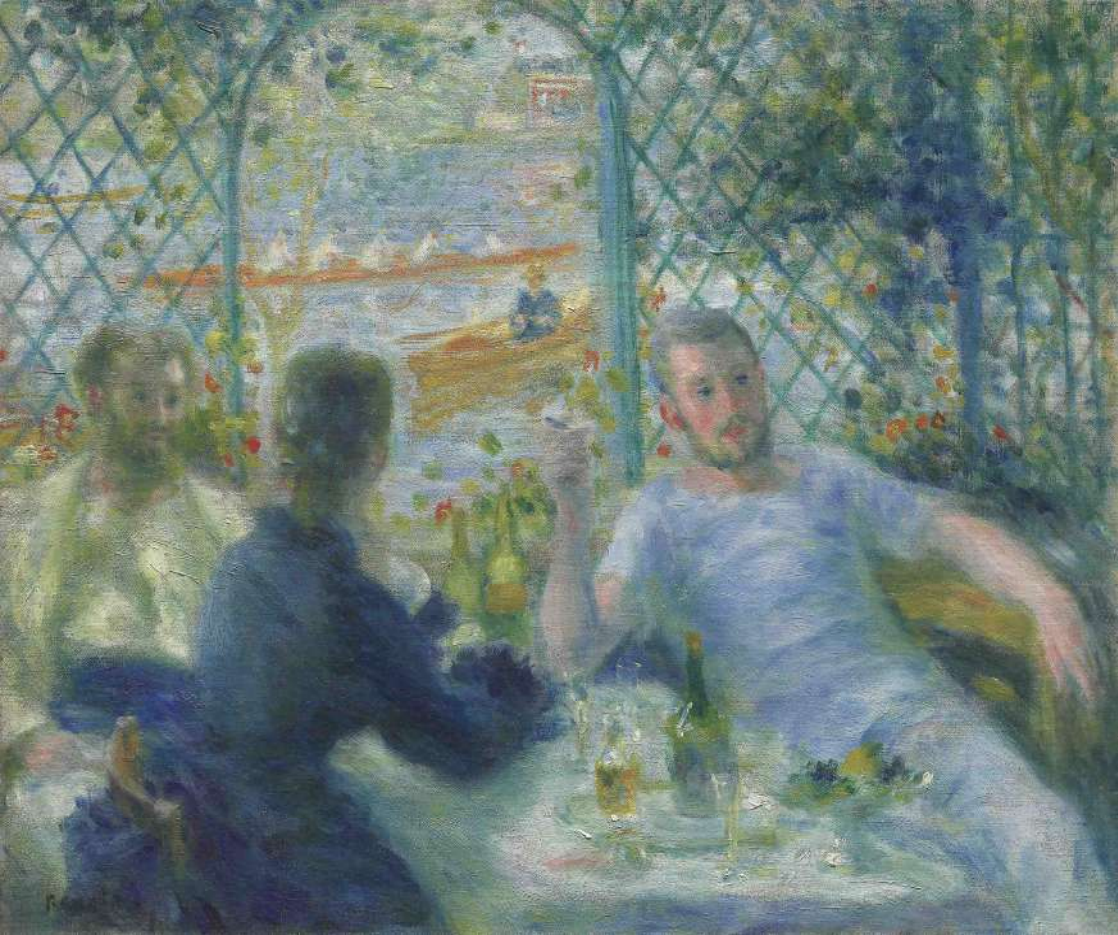
아, 무료하다. 나른한 일상. 지루하면 자극이 필요하고, 위태로우면 평안이 필요하다. 내 나이 열한 살에 벌써 모든 걸 깨달아버린 느낌이다. 이런 시시한 꼬맹이를 그려서 무슨 재미가 있다고 저 작자는 아까부터 말도 없이 붓질만 하고 있네. 재미없어. 근데 자세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나보네. 아까부터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앉아있는데. 잠깐만, 내가 아니라 루시를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대로 섭섭하네. 아니야. 그래도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딴 데 쳐다볼 거야. 자존심이 있지. 아, 배고파. 아까 오트밀이라도 든든히 먹어둘걸. 아니야, 그랬으면 배가 불룩하게 나왔을 거라고. 저 고리타분한 작자가 잘도 내 뱃살을 아름답게 왜곡해주시겠다. 분명히 모든 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애를 쓸 거야. 잠깐만, 완성된 그림을 보면 내 등쪽에 엄마 손바닥 자국이 남을지도 모르겠는데? 심난하네.

#나태 #관심없음 #심난

어린이가 짧은 옷을 입고 다리를 세우고 앉아서 맨다리가 흰히 드러난다. 발랑까진 꼬맹이인건지 세상 어른들이 맨다리라는 것에 어떤 음흉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는 순진무구한 꼬맹이인건지는 모르겠다. 어른들이 아이의 몸을 보며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야되는데 몇몇의 정신이상자들 때문에 그림속 아이의 인성을 재단해버렸다.

초딩 때 '가요 톱 텐'같은 음악방송 무대 영상을 녹화하여 돌려보며 가수들의 춤을 따라쫓았는데 그 때는 팔다리나 휘적휘적 거리지 요즘 여자 아이돌들의 안무처럼 몸을 배배꼬고 다리를 벌리며 앉고 엉덩이를 흔드는 그런 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유튜브 영상에서 초등학생 여자 꼬맹이가 여자 아이돌의 섹시댄스 안무를 완벽하게 따라추는 것을 보았다. 그냥 영상 속 가수가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해서 따라서 춘 거겠지...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어른들이 밉다.

#발랑까진 #순수함 #의도 #아동범죄



간도 보고 깐도 보지만 간을 보는 건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일이고, 깐보는 건 형편이 내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판단할 때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깐볼 일은 없었겠다. 내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헤아렸다면 그런 관계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 나 또한 남자는 물론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깐보고 싶지 않다. 하긴 내게 이롭고 해로운 게 뭐 있다고

동사의 맛 中\_김정선

#남녀관계 #밀당 #깐보는







아이의 반짝이는 발톱을 꿈꾸다  
뜨거운 양수가 쏟아져내렸다  
이어 찬바람이 불자 발등이 굳어버렸다

바알간 너를 안고 이 세상을 가졌지만  
나는 더이상 흔들릴 수 없는 나무가 되었다.

#생명의탄생 #산후현실 #우울한





“혹시 이 중에 오늘 글쓰기를 안 해온 사람이 있소?”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좋소. 그렇다면 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소.”

“잠깐, 잠깐만요. 발표라니, 거 부끄럽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소. 자고로 글쓰기란 자신의 맨발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일이요. 다들 그 발바닥을 잘 씻어 왔을 테지.”

“거, 비유가 더럽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하겠소?”

“저부터, 저부터 용서를 빌겠습니다.”

“안 썼어?”

“네, 그래서 테이블 밑에서 부랴부랴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주최자로 보이는 사내의 눈이 번뜩였다.

“저런.”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쓰고 있잖소.”

그러면서 사내는 부끄러운 듯 자신의 흙 묻은 발을 옷 아래로 감추기 위해 애썼다.

#마지막밤 #까먹을뻔했다 #항상어려운

예수는 말했다.

"너가 네 눈에 막대기를 빼기 전에 상대방 눈에 티끌을 뺄 수 없다."

그때 나는 이렇게 반문했다.

"당신은 보편 진리를 깨달은 분이라 막대기와 티끌을 정확히 분간하실 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저는 그게 힘듭니다.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의 눈에는 틀림없이 대들보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누군가는 저 대들보를 뽑아야 하지 않나요?

더욱이 제 막대기를 지적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저조차 제 눈에 박힌게 대들보인지 막대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선 저 대들보를 제가 뽑아 버리고 제 막대기는 그 후에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자라면 그때서야 그걸 보고 다른 누군가가 용기 내어

제 막대기를 지적하며 빼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다시 말했다.

"네 말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명심하거라.

사람은 자기 시야로 밖에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무언가를 판단하고 견책할 땐 늘 주의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란 내 말이 곧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편적인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가 어두운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이지 세상의 선과 악, 정의와 불의는 낮과 밤처럼 명확하게 존재한다."

알미트라n박준형 (2)

나는 그 말에 안심하고 기뻐하며  
그놈의 먹살을 잡기 위해 일어섰다.

#인간관계 #사회생활 #주관 #객관 #도덕 #선과악





9명 글쓴이, 1명 사진작가  
60개 사진, 36개 그림, 420개 태그

#주구장창내리느비 #날씨 #장마 #야경 #치열한삶 #불타는인생 #스트레스 #해소 #고향 #마다 #응어리 #명상 #하늘 #푸르다  
#상실감 #주제 #스스로 #존재 #가치 #눈감으면 #코베이는 #세상 #치열한 #현실 #불안 #자기위로 #죽음의철학 #자존감 #mr  
#원래그래 #허탈 #선택 #선택장애 #회피 #악마 #내면 #어로 #욕망 #낮술 #자유 #새로움 #호기심 #인간관계 #뒷담화  
#착한아이 #상상보다 #무서운 #현실 #침식 #기분 #사정 #서운함 #옛사랑 #추억 #봄날 #분노 #권력 #공허함 #블랙홀  
#천지창조 #빅히스토리 #우주 #역사 #인류 #센스 #삶 #사회생활 #고민따위 #쓸데없다 #일단 #저질러 #누가먼저였을까 #절망  
#슬픔 #쓸쓸함 #이별 #위안 #결핍과불행 #지금의행복 #만족하는삶 #결혼의현실 #멀리봐아평은 #툭툭한시인 #반복된일상  
#잊혀진선택 #휘영환 #그리움 #회한 #미안함 #썰렁함 #구물거림 #평화로운 #비오는날택시 #그리움 #다짐 #복잡한  
#우주같은감정 #안심시키는 #동경 #고독한 #영원 #추억 #무심했던 #미안함 #반려동물의죽음 #외면 #슬픔 #한밤중지장  
#흑역사 #허술한 #사회인으로서 #무의미한추억 #어색한 #궁벽진골목 #뜨듯한 #너근한 #돌이킬수없는 #전장 #살벌한  
#타인의기적 #질투의시선 #부러움 #죽음앞에서 #두려움 #안도시키는 #붉은노을 #먹먹한 #공허한 #열망하는 #정작알지못한  
#허망한 #부정적인감정은없다 #분노 #무기력한 #생명의탄생 #산후현실 #우울한 #남녀관계 #밀당 #간보는 #오쇄동삼거리  
#3번버스 #그어빠의그말 #고산리밤산책 #손전등필수 #다음엔은하수보러가자 #다지나일 #따뜻한 #말한마디 #한숨 #풍당  
#빛이나는술로 #색맹 #후회는언제나늦지 #첫인상 #잔물음착 #첫인상이끝인상이라고안했다 #수건 #짐정리 #굴한바구니  
#데이트하러가는길 #내마음마치굴밭 #장래희망 #1병장수 #아침달리기의목표 #정력과알콜 #욕망덩어리 #관계의소멸  
#인연의민낯 #안개속 #간격 #사고다발지역 #경고등 #술값은나가내라 #술이단테입은쓰네 #밤하늘 #기타 #연애 #설렘 #이건꿈  
#생생했던꿈 #오늘꿈 #사라져버린색 #저마다의색 #색의온도 #달밤 #반짝거림 #하늘 #아름다운 #전선 #독일사진작가 #전기줄  
#평범한일상 #코로나싫어 #가을 #여름은다가고 #전염병 #사랑이야기 # 짝사랑 #사진에도온통너야 #왜잘생겨서서 #왜잘웃어줘서  
#왜그리친절해서 #왜내편이되줘서 #소셜이랑에세이좋아한다고는왜그래서 #책임은사람이런거잖아 #기타는왜잘쳐서  
#사랑과춤의경계 #열정을 쏟고난후 #마음 #몸도지침 #애정어린마음 #사랑일까 #두근두근 #좋아해요 #사랑하고요 #에뭇한거겠조  
#사실잘모르겠어요 #내년계획 #내일이있을까 #프레임 #기대하면실망도크다 #내년엔누수있겠지 #여행가고싶다 #산물 #소소하게  
#마음표현하기 #부치지못할편지 #계절 #보고싶다 #평범한행복 #평범한일상 #그마저도행복할것같아 #상처받은날 #마상이었다  
#정세랑 #이만큼가까이 #유니폼 #소속감 #좋은사람 #신기한경험 #오랜만 #타인의시선 #자의일까타의일까 #될놈될 #대나무술  
#sns의위험성 #글쓰는나 #마음이 #시키는일 #소중한 #나 #삶 #태도 #가성비 #운동 #걷기 #턱걸이 #설레이는 #마음속 #그대  
#차디찬 #바람 #추억 #복잡한 #걷기 #반성 #다짐 #에너지 #나이어갈길 #사랑해요 #벽차오르는 #설렘 #책임져 #내마음 #나홀로  
#바라본 #공원 #일상 #코로나 #시간 #속도 #혼자만의시간 #회사생활 #명망 #다급함 #필사적인사람들 #둘 #궁지에몰린상황  
#은명공동체 #고집쟁이 #독선적인 #나른한오후 #나른함속의서스펜스 #아무도모르게 #신비로운분위기 #다른세계인것같은느낌  
#무언가를발견한사람 #노동이끝날무렵 #오늘은뭔가가들까 #만족스러워하는남자 #풍만함 #몽환적인 #영망진장 #경멸 #생존  
#기다림 #그리움 #혼자만의시간 #먼곳을바라봐어만하는데 #일상 #당연하게생각했던것 #중요하지만모르고있는사실 #연결 #점검  
#라고시작하는소설을써보면좋을것같은 #적적함 #아득함 #유쾌한오후 #한가로운산책 #무관심 #알아도모르는 #개별적인 #날씨  
#각자도생 #밤의장막 #잊혀지는것들 #너의목소리기안들려 #잔인함이일상이되어버린사람들 #꿈적함속에서의당연한일상 #삶  
#죽을때까지는죽은게아니다 #나태 #관조 #방안에누워서신세한탄하기 #회상 #삶 #미련 #아득한구원자 #나태 #관심없음 #심난  
#마지막밤 #가먹을뻔했다 #항상어려운 #망설임 #기다림 #불협화음 #흐림 #희망 #기원 #바다 #해변 #모래사장 #광활 #무한  
#추억 #영어 #일상 #단조로운 #존경 #사회 #검정 #검은색 #상징 #긍정 #상징가 #코로나 #폐업 #새출발 #희망 #선지자 #희생  
#의미 #죽음 #갈망 #부끄러움 #인간관계 #사회생활 #주관 #객관 #도덕 #신과악 #깜짝 #발견 #맛있겠다 #훤쳐보기 #은밀  
#도착 #성장 #홀로서기 #기다림 #버티기 #아슬아슬 #따뜻함 #그리움 #정적 #아리송 #왜 #다정함 #부부금슬 #예쁨 #희소성  
#가만히 #Litigo #내미뒤 #흐림 #절망 #삭막 #올려다보기 #다보인다 #포식자 #상위계급 #지배계층 #미물 #상자속개미  
#발랑까진 #순수함 #의도 #아동범죄

함께쓰는 밤 시즌 4

# 사진과 감정들

2020. 12. 24.

